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  
-Max van Manen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김 영 미

지도교수 이 경 희

2 0 2 0 년 8 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  
-Max van Manen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경 희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 0 2 0 년 8 월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김 영 미

# 김영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이 병 숙

---

부 심 이 경 희

---

부 심 이 은 숙

---

부 심 박 선 영

---

부 심 김 상 남

---

계 명 대 학 교 대 학 원

2 0 2 0 년 8 월

## 감사의 말씀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삶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게 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며 보듬어주신 이경희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수님처럼 항상 미래를 보고 도전하며 제자들을 아끼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넓은 통찰력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편안한 웃음으로 논문을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이병숙 교수님,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꼼꼼히 지도해주신 이은숙 교수님, 다양한 관점으로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박선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그곳에 계시면서 항상 격려와 지지를 아낌 없이 베풀어 주신 경운대학교 김상남 학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바쁜 학과의 일정 속에서 기꺼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려원 총괄 학과장님을 비롯한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휴먼트리 여러분과 홍경숙 교수님, 대상자로 참여했던 정신장애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소영 교수님, 같이 논문을 쓰며 힘들 때 서로 격려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물신양면 지원해주시고 세 남매의 어머니의 빈자리를 넘치게 채워주신 시어머님 우지연 여사님과 시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신 아버님과 어머니 두 분 부모님께 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카

들을 돌보아주고 힘차게 응원해 준 언니 영경, 동생 영국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항상 기다려주고 의젓하게 잘 자란 세 남매 나리, 수환, 수현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의 버팀목이 되어 준 남편 신윤희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간호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김 영 미 드림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 .....                     | 1   |
| 2. 연구목적 .....                        | 4   |
| 3. 연구문제 .....                        | 4   |
| II. 문헌고찰 .....                       | 5   |
| 1. 정신장애인과 직업 .....                   | 5   |
| 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                 | 8   |
| 3. 방법론적 고찰 .....                     | 14  |
| III. 연구방법 .....                      | 21  |
| 1. 연구설계 .....                        | 21  |
| 2. 체험의 본질로 돌아가기 .....                | 21  |
| 3. 실존적 탐구 .....                      | 24  |
| IV. 연구결과 .....                       | 58  |
| 1.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 ..... | 58  |
| 2. 해석학적 현상학 글쓰기 .....                | 71  |
| V. 논의 .....                          | 76  |
| VI. 결론 및 제언 .....                    | 85  |
| 참고문헌 .....                           | 87  |
| 부    록 .....                         | 99  |
| 영문초록 .....                           | 106 |
| 국문초록 .....                           | 109 |

## 표 목 차

|                                   |    |
|-----------------------------------|----|
|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 27 |
| 표 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적 주제 ..... | 59 |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 단계(van Manen, 1990) .....             | 20 |
| 그림 2. 빛을 향해 나는 새 .....                                   | 47 |
| 그림 3. 커피 그리고 나 .....                                     | 48 |
| 그림 4. 웃음 .....                                           | 48 |
| 그림 5. 참여자 A의 작품 .....                                    | 49 |
| 그림 6. 참여자 B의 작품 .....                                    | 50 |
| 그림 7. 참여자 C의 작품 .....                                    | 50 |
| 그림 8. 위 캔 두 댕! (Si Puo Fare, We Can Do That, 2008) ..... | 54 |
| 그림 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네 개의 실존체 .....                     | 58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17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25.4%로(보건복지부, 2017), 성인 4명 중 1명은 사는 동안 1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정신건강현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증상관리와 손상된 정신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재활이라 할 수 있다.

의학 모델은 전문가의 진단 중심으로 완치 또는 증상 완화를 회복의 근거로 인식하였고, 정신장애인은 판단능력을 상실한 수동적 존재로 판단하여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과 정신장애인의 회복 가능성이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면서 회복 중심의 정신사회재활 모델과 회복 모델로 전환되었다(김민석, 2018; 송은주와 김정희, 2019; 하경희, 2019). 그러나 전자인 정신사회재활 모델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질환의 치료 결과로 해석하고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 적응과 재활을 도왔으나, 정신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안희철과 김민아, 2017; 이근희, 2014; Whitley & Drake, 2010). 후자인 회복 모델에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많은 정신장애인의 회복 수기를 통해 이들이 독립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과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는 관점이 주목받으며 정신장애인의 주관적·심리적 경험에 관한 관심이 확산하였다. 그 후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질환으로 야기된 제약을 안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개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Anthony, 1993).

Deegan (1988)은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목표를 두는 회복과정에서 질병 관리 및 직업서비스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직업은 경제활동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를 앞당겨 줌으로 당사자 중심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야 한다(나운환 등, 2014; 박종은, 2017; 손명자, 2006; Aviram, 1990; Blustein, 2006; Pratt, Gill, Barrett, & Roberts, 2013).

정신장애인은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능력은 있더라도,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거나 직업 선택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김혜연, 2010). 또한,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의 만성적 경과, 잦은 재발, 사회적 기능감퇴,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낙인, 현실과 유리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정책 등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취업의 기회도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손명자, 2006; 연명모와 이금진, 2013; 최희철, 2015; 한상숙, 한정혜와 윤은경, 2008).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 직업재활서비스 등 고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김고운과 김수진, 2017; 박경순과 전미리, 2009; 변은경, 윤숙자와 최송식, 2012; 유승주와 김옥희, 2018; 이준호와 최희철, 2015; Edwards, Bell, Arthur, & Decuir, 2008; Kirsh, 2000; McLean, 2003), 직업 유지 및 중단 관련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김고운과 김수진, 2017; 김성희와 이요행,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는 보호작업장과 임시취업, 사회적 기업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지웅 등, 2015). 반면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 등 경쟁 고용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상황, 자존감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민과 밀러 우마, 2015; Dunn, Wewiorski, & Rogers, 2008; Jahoda, Kemp, Riddell, & Banks, 2008; Kober & Eggleton, 2005), 정신장애인이 경쟁 고용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McQuilken et al., 2003; Frounfelker, Teachout, Bond, & Drake, 2011;

Ramsay et al., 2011).

정신건강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중 하나인 정신건강간호사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그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간호 교육과정에서 직업상담가로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신건강간호학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관한 연구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실시되고 있지만(정미화, 2017), 양적 연구방법이 우세하여 질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김지혜와 유석분, 2016; 오수경과 장숙, 2019; 이미형 등, 2007; 정미화, 2017).

정신건강간호사가 정신장애인의 직업상담가로서 역할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열악한 직업환경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생존 방법의 결과로 나타난 직업유지 현상에 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 사회 구성원들은 정신장애인 직업유지에 대한 이해와 태도,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주관적 속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생애사적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직업 또는 일에 관한 장기적인 삶의 본질을 보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중심의 직업유지에 대한 독특한 개인적 경험과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송은주와 김경희, 2019; 오수경과 장숙, 2019).

따라서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정신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삶의 상황이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제한적인 업무가 아닌 지원 고용이나 독립취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일하는 정신장애인의 경험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직업유지 경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해 직업유지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Giorgi, van Kaam, Collaizi 등 여러 유형의 현상학 연구

방법 중 하이데거의 철학적 존재론적 사고를 받아들여 언어의 이해에서 벗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을 목표로 하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다(공병혜, 2004).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그들의 내면세계를 수량화된 언어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인식과 현상, 관계의 실존을 파악하는데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은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van Manen (1990)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존재와 존재의 되어감의 교육과정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인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의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 관점에서 직업유지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연구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어떠한 의미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유지를 위한 정신장애인과 고용주에게 통찰적 지식을 제공하고, 정신건강간호사가 직업상담가로서 그들을 중재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신건강간호사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지식 제공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그들 삶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Ⅱ. 문헌고찰

### 1. 정신장애인과 직업

정신장애는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수용되지 않는 행동의 문제를 가졌을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지속해서 변화하였고, 정신장애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는 정신장애를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서 정신 기능의 기초를 이루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혹은 발달과정에서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개인의 인지, 정서 조절 또는 행동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장애를 뜻하였다. 정신장애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신질환의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0). 2017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과거 정신장애인의 재활은 증상 완화와 개선을 위한 치료 중심의 의학적 모델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는 정신사회재활 모델로 전개되었다(김이영, 이용표와 강상경, 2006; 안희철과 김민아, 2017; 이근희, 2014; Whitley & Drake, 2010). 이 모델들은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이 주체성을 갖기 어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김이영 등, 2006; 이용표, 강석임과 노수희, 2015).

이후 등장한 회복 모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증상이나 기능보다 그들의

내부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정신장애를 가진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 강점을 강조하며 회복을 개별적이고 고유한 심리적 변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Anthony, 1993; Lunt, 2002; Ostrow & Adams, 2012; Staples, 1990).

Anthony (1993)는 회복을 정신장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삶의 정체감과 목적으로 강조하였다(Davidson, O'Connell, Tondora, Lawless, & Evans, 2005; Deegan, 1988). 즉,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자아 성장 가능성과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며, 독특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한 삶의 의미 발견과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만족감 등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Angell & Test, 2002; Blustein, 2006; Casper & Fishbein, 2002). 그리고 직업은 개인의 흥미, 개인이 가진 기술, 삶의 스타일, 자아존중감과 연관성이 높다(Erikson, 1959; Fouad & Byars-Winston, 2005). 직업 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매일 매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개인과 관련된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lustein, 2006). 결국, 광범위한 직업의 의미는 장애 유무, 남녀노소, 지역, 인종을 떠나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Fouad & Byars-Winston, 2005), 정신장애인에게도 직업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만성화되는 질병의 특징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 심하고, 망상과 환각 등의 잔존증상과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의 인식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정신장애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재발하거나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과 업무수행 능력, 여러 상황에 있어서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져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었다(Benton & Schroeder, 1990). 심리적 요인으로 직업에 대한 동기 부족과 목표의 상실을 꼽을 수 있으며, 과거 잦은 입·퇴원으로 인한 무기력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낮은 자존감이 정신장애인 직업유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발병 후 질병의 만성화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이 직업능력의 부족과 직업 경험의 제한

으로 이어져 정신장애인이 실제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정신과적 증상 경감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직업은 성장과 자아실현의 발판이 되며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게 그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Korr & Ford, 2003).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더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장애로 인한 기능 상실 없이 회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유지를 돕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최종적인 목표는 정신장애인의 적응을 통한 직업 유지와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장혜경, 1996).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 원활한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진로 교육을 시행하고, 보호작업장, 임시취업, 지원 고용, 경쟁 고용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박종은, 2017; 최희철, 2015; Corbiere & Lecomte, 2009).

직업유지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종결한 후 직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직업재활의 성공적인 성과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인 직업유지 기간에 대한 의견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Disterfano와 Pryer (1970)은 직업재활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최소 30일간 직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사회에 적응한 것을 기준으로 보았다. Cheadle와 Morgan (1972)는 퇴원 후 4주 이내 일을 시작하고, 같은 직업이 아닐지라도 퇴원 후 6개월까지 일을 하며, 도중에 2주 이상 일을 중단한 적이 없는 등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직업재활의 성공으로 보았다. Purlee (1993)는 직업재활서비스 종결 후 취업 이후 60일을 직업유지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성공 기준을 한 직종에 지속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직업유지라는 것으로 정의내렸다(류지수, 2003; 심경순, 2003; 이금진, 2003).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통계연구에서는 3개월 중 45일 이상 고용된 자를 상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2주일 이상 일을 중단한 적 없이 6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직업재활의 성공으로 예측하였다(김미영, 김연실, 이난희, 정보영과 조현미, 2013; 변은경 등, 2012; Cheadle & Morgan, 1972).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가 저조한 이유는 사회적 편견, 제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지만, 정신장애인 본인의 직업에 대한 동기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안은선과 서지민, 2015).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업에 대한 동기가 없으며 보상이나 강요, 가족의 기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취업하더라도 직업유지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안은선과 서지민, 2015).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급권자인 정신장애인은 공적 소득 혜택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해 직업에 대한 동기가 없거나 직업을 포기하였다(Ford, 1995). 이는 직업의 주체인 정신장애인의 욕구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 직업재활서비스 형식을 빌려 제공하는 제도적 문제이며,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자아 의미를 발견하는 데 한계에 부딪혀 직업유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김현민과 유진선, 2017).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가 성공하려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 중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4.9%, 실업자는 6.3%로 2018년 대비 고용률은 0.4% 상승하고, 실업률은 0.3% 하락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고용률 21.8%, 실업률 8.8%로 나타나,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지체 외 신체 외장애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이는 전체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점차 활발히 일어나는 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는 감소한 것을 의미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처지에서는 임금 수준이 낮고 임시고용과 시간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 등의 낮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문제점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김성희 등, 2017; 박주홍, 2009; 하경희와 성준모, 2012).

고용노동부(2019) 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중 직업재활시설에 가장 높은 비율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정신장애인이 보호적 환경에서 저임금 비숙련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보호 고용보다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의 형태로 취업하였을 때 삶의 질과 수입이 향상되며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므로, 일반 사업체의 취업 연

계를 통해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의 비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Dunn et al., 2008; Kober & Eggleton, 2005).

전체 장애인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5년 10개월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은 3년 9개월을 근무하였고, 정신장애인은 발달장애 다음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고용노동부, 2019),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취업 후에도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욕구와 취업자 수는 점점 증가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의 고용 관련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에게 직무능력보다 취업과 직업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김미영과 변은경, 2015; 변은경 등, 2012; 이준호와 최희철, 2015).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와 달리 겉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다(Anthony, 1993). 사회적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근로 무능력자로 간주하는 편견, 직업 및 자격취득의 제한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빈곤과 자아실현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고(고용노동부, 2018;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0), 이는 정신장애로부터 낮은 회복률과 고용률, 높은 중도 포기율로 나타난다(Liu, Iwamoto, & Chae,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결정하는 고용기업체에서는 고용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가 23.4%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가 18.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취업 취약계층으로 노동시장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고용환경이 조성이 시급하며, 취업의 기회 확대가 직업유지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수준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지적인 사회적 환경이 필수적이며, 사회의 시선이나 태도, 특히 일반인의 태도는 정신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McReynolds, 2002).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그 사회의 뒤틀린

일원으로 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범위가 제한된다(주소희와 이경은, 2019).

여러 연구에서 일반인이 가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은 정신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에 대한 직업의 기회를 제한할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이형렬과 이화진, 2005).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실직은 재활 및 신체적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Stuart, 2004),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증폭시킬 수 있다(Morrell, 2002). 많은 연구가 정신장애인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접촉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김미영과 전성숙, 2011; 류승아, 2012).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만나게 되는 일터에서의 접촉 경험은 정신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일반인과 일하는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의 고용 형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 욕구를 채우고 다양한 직업적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사회 속에서 일반인과 부딪히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고용 결정권이 있는 고용주의 태도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경험에 따라 긍정적이었으며(김미영과 전성숙, 2011), 정신장애인과 접촉 경험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류승아, 2012).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해소가 필요하고 국가적·사회적 협력을 끌어내는 방안과 정신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근무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직업유지 요인에 관한 연구와 직무 만족 영향 요인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조상미, 김경희, 최미선과 백은지, 201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요인에는 나이, 자기효능감이 있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급여, 근무시간,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지지, 회복 태도가 있었다(남연희와 채인석, 2009; 변은경 등, 2012; 이금진, 2003; 이준호와 최희철, 2015).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갖기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단계를 거치지만, 질병의 만성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의 미숙하여, 직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시각과 차별적 대우를 받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류지수, 2003). 또한, 고용주로부터 편견의 대상이 되었으며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쾌한 작업환경은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게 촉발하는 장애 요인이 되었다(김미영과 전성숙, 2011; 류승아, 2012; 박정순과 전미리, 2009; 심경순, 2003).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과 관련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송국클럽하우스 사례관리대상자인 정신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직업유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업의 의미를 가치 있는 사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직업유지 요인에 대한 경험적 인식으로는 자신감, 대인관계의 원만성, 고용주나 상사의 지지, 전문가의 지지라는 4가지 주제가 나타났다(심경순, 2003).

김고운과 김수진(2017)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신장애인 5명, 가족 2명, 고용주 2명, 실무자 1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직업유지 경험에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 및 느낌을 유형화한 결과, ‘직장 지지형’, ‘자기 관리형’, ‘경험 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상미 등(2012)은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취업 경험에 관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나다’, ‘현실의 벽을 넘어 인사이드로 삶을 살아가다’로 도출하며 사회적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중단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결과, 일하기 힘들고 직장 안에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직업을 중단했지만, 정신장애인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직장인으로 인정받는 자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중단 경험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김미영과 변은경, 2015).

그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과 같은 경쟁 고용 형태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성장과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경쟁 고용 형태로 직업을 유지하는 정신장애인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정신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유지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정신장애인 개인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직업유지 과정과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전문가 중심의 연구는 결국,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능동적 주체로서의 동기화 유도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 당사자 중심의 독특한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방법론적 고찰

#### 1) 현상학

현상학에서 ‘현상(Phenomenon)’은 ‘의식에 주어진 것’, ‘의식에 나타난 대상’을 일컬으며, 의식과 대상의 지향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지각된 사태 자체이다(유혜령, 2014). 현상은 아직 언어화되지 못한 많은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세계로(유혜령, 2014), 현상학은 이런 현상의 사실보다는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본질이란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또는 형상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현상에서는 의식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본질을 본다는 뜻이다(조광제, 2008). 현상학의 뿌리인 후설이 현상학적 신조로 말하는 ‘사태’가 바로 현상 자체이며, 하이데거는 현상을 자신을 그 자체에서 내보여주는 것, 자신을 그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말하였다(Heidegger, 1998). 즉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에 드러나는 바로 그대로의 현상을 우리가 겪은 그대로 기술하여 인간의 체험 본질과 그 의미구조를 해석하는 인간 과학적 연구이다(van Manen, 1990).

현상학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은 19세기 후반 콩트의 실증주의가 형이상학적 태도를 거부하며 과학의 방법을 인간 지식의 원천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객관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된 양적 연구방법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에 도입된 과학적 실증주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인과적 구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들로 구성된 세상임을 간과하였다(김애령, 2009).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은 과학을 주창하는 콩트의 실증주의에 따라 제거된 인간 체험의 본성, 의미, 본질적 이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창시된 현대철학의 방법론이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는 환원, 괄호 치기, 에포케와 같이 선이해나 선지식에 대한 거리 두기는 후설의 철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다(정상원과 김영천, 2014; van Manen,

2014). 특히, 환원은 좁은 의미에서 대상을 탐구하는데 모든 선지식의 배제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 지식 근원과 출발점인 ‘사태 그 자체로’로 돌아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는 것으로 후설은 현상학의 기본 구조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의식이 지향하는 특정한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Husserl, 1997). 따라서 ‘체험’이라는 현상학적 용어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일컬으며, ‘사태 그 자체로’로 돌아감은 바로 의식이 지향하는 체험의 본성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Husserl, 1997). 후설은 인간이 의식하는 대상(Noema)과 그것을 향한 의식(Noesis)은 필연적으로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하였으며, 현상학은 이러한 상관관계인 지향성의 의식작용으로 본질적인 의식 구조를 파악함을 목표로 하였다(Husserl, 1997). 또한, 그는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질직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본질직관은 많은 개별적 대상들의 보편적 속성을 포착하는 자유 변경과 형상적 환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즉 후설의 현상학은 모든 선지식에서 벗어나 어떤 인식의 대상에 집중하여 해석이나 성찰을 거치지 않고 의식에 떠오르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한전숙, 1996)

하이데거는 후설의 제자로 그의 현상학에 해석학적 전통을 도입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을 발전시켰다. 후설이 인식론에 집중하는 반면에 하이데거의 학문적 관심은 존재 그 자체이며, 탐구는 존재론에 집중하여 어떤 것의 존재를 묻는 것은 그 현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묻는 것과 같다고 보고 존재 의미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현상학을 전개하였다(한전숙, 1996). 하이데거는 이해와 해석을 인간 존재의 근본 형태라고 보고, 이해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해명, 해석하는 기틀이 되므로 해석학은 존재론의 실마리를 던져준다(김귀분 등, 2005).

하이데거에 따르면, 일상 세계에서 인간 현존재를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하고, ‘세계 내 존재’로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 즉 피투(Geworfenheit)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 기투(Entwurf)하는 존재로 인간 실존의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결국, 하이데거 해석학적 현상학의 분석 대상은 ‘세

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이며, 현존재는 선이해와 이해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현상이나 체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다(이남인, 2004).

후설의 현상학은 순수의식과 절대적 주관을 중심으로 선험적 현상학의 성격을 띠다가 후기에 갈수록 체험의 근원을 신체적 주관이 체험하는 생활 세계라고 하는 생활 세계적 현상학으로 발전한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생활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사고를 변형시켜 지각의 현상학을 전개한다(이남인, 2013). 메를로-퐁티는 정신의 절대화를 비판하며 절대화의 대상이었던 정신 대신, 우리의 몸 또는 인간은 세계 내 존재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세계 내라고 설파하며, 정신 즉, 의식에서 몸, 신체로의 전회가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철학의 초석이다(류의근, 2016). 메를로-퐁티는 지향성의 중심인 우리 몸과 생활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상호관계성을 발견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메를로-퐁티는 이 세계가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자아와 타자, 우리와 세계, 생리와 심리, 육체와 의식, 지각된 것과 행위 등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나타나서 상호 교호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몸'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공병혜, 2017).

메를로-퐁티는 몸의 주체에 의해 지각된 체험의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인과적 설명이나 해석적 일반화를 하지 않고 세계와의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재접촉에 집중하여 주제 현상을 탐구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존재론적 표현을 부여하였다. 메를로-퐁티의 실존론적인 지각론에 영향을 받은 van Manen은 지각의 현상학에 따라 현상의 지각적 체험을 체험된 신체와 시간, 공간, 관계의 실존적 의미 축을 중심으로 생활 세계 체험의 연구주제와 현상학적 글쓰기를 중시한다(유혜령, 2015).

van Manen은 현상학과 해석학의 두 전통 모두의 학문적 특성을 이어받아 해석학과 현상학적 접근으로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형성한다(유혜령, 2015). 즉, van Manen (1990)의 연구방법론은 단지 현상을 들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논하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특

정을 지닌다. 바로 인간학적 접근의 교육학으로 ‘인간, 삶, 삶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바탕으로 교육학의 현상학적 접근을 전개한다.

van Manen은 후설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사태가 드러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사태가 스스로에 관한 무엇인가 말할 수 있도록’ 사태를 기술한다. 한편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에서 주장하듯 모든 현상은 해석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 즉, 체험되는 사실들은 그 어떤 의미이든 체험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해석학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유혜령, 2015). 특히, 탐구하고자 하는 체험의 구조는 언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어적 해석을 통해 다가설 수 있으며, 하이데거가 논의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체험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이 이루어진다(van Manen, 2014).

현상학은 현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존재론적, 인식론적 물음을 지닌 철학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인식론을 바탕으로 의식작용의 본질적 구조를 순수하게 기술하는 현상학이고,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 실존에 대한 존재론을 전개하며 현존재의 존재 이해를 깨닫기 위해 해석하는 실존적 현상학을 주장하였다(이남인, 2004). 그리고 1940년대 이후 프랑스로 건너간 후설의 신체 주관에 근거한 생활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사고는 메를로-퐁티에 의해 인간 몸을 중심으로 지각의 현상학으로 변형되어 실존적 인간 이해의 핵심주제가 된다(이남인, 2004). 또한,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메를로-퐁티의 실존론적인 지각론에 영향을 받은 van Manen은 체험적 시간과 공간, 몸, 관계의 실존적 의미 축을 중심으로 생활 세계 체험의 연구주제와 현상적 글쓰기를 중시한다(유혜령, 2015).

1960년 이후 현상학은 미국으로 건너가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주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이 조직적인 운동으로 등장하고(Crotty, 1996), van Kaam과 Giorgi, Colaizzi 같은 심리학자들이 현상학적 연구방법들을 제시한다(공병혜, 2004). 1970년 직후 주관적 경험을 간과하는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간 과학으로서 간호학문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이어지고, 간호 본질에 적합한 새로운 학문적 태도와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주목하게 된다(이은주과 박영숙, 1993).

## 2)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van Manen은 인간의 경험 연구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이론화하고 또한 이것이 인간 경험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지속해서 제시해 왔다. 사람마다 지각이 다르고, 개인의 지각과 행동 역시 시간, 공간, 대상,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그 누구도 특정의 현상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기술하지 않는다(van Manen, 2016). 그래서 그 현상이 지닌 개별성, 구체성, 차이를 통해 인간 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해석학적 현상학의 특성이다(김애령, 2009). 다시 말해 van Manen의 현상학은 현상을 드러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논하여 기술적 측면과 해석학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유혜령, 2015).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의 목표는 ‘그 체험은 무엇인가?’, 즉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다. 본질은 다양한 개별적 대상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일컫는다(이남인, 2012). 현상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판단중지’와 ‘환원’이 요구된다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본질직관’이 요구되고(이남인, 2012), 이는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 절차를 응용한다. 본질직관은 현상 또는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즉 ‘통찰’로 연결되며, 대상자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인간의 체험을 탐색하여 기술하고, 현상학적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의 원천인 어원, 문학 및 예술작품 등의 자료를 활용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과정을 거쳐 체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냄으로써 대상자의 경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van Manen, 1990).

van Manen (1990)은 본질적 주제를 분석하는 과정의 길잡이로서 체험된 시간, 체험된 신체,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의 생활 세계의 네 개 실존체를 설명하고, 네 개 실존체는 상호교섭적 관계로 인간의 경험과 체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이끌었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신체적 체험, 시간적 경험, 공간적 체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관계적 의미로 직업유지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van Manen은 현상학적 연구와 기술을 위하여 진행해야 하는 다음의 4단

계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체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단계는 현상에 대한 지향과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는 단계로 연구자가 ‘흥미’를 가지고 알기를 원하는 현상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실존적 탐구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감에 기반을 두고 주로 인터뷰, 스토리텔링, 일기,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참여자의 생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흥미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탐색한다(김영천과 이현철, 2017). 연구자가 지향하는 현상에 대해 정형화된 경험이 아닌 현상 그대로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현상과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을 활용하는데 이는 나의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상에 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심층 면담과 생생한 체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원, 관용어구,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등을 탐색한다. 세 번째는 현상을 특징짓는 본질적 주제를 드러내는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구체적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의미 단락을 구분하고 이를 잠정적으로 해석하며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본질적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질적 연구 자료 분석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van Manen, 2014). 네 번째는 해석학적 현상학 글쓰기 과정으로 ‘일화 인용하기’와 ‘현상 기술하기’, ‘해석하기’로 이루어지며, ‘인간 과학 연구는 글쓰기와 다시 쓰기 자체’라는 van Manen (1990)의 주장처럼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글쓰기와 다시 고쳐 쓰기 과정 자체라고 할 만큼 언어적 성찰에 의존하고 있다(Vandenberg, 1974).

van Manen (1990)은 현상학적 글쓰기가 현상의 특성에 대한 감각과 사유를 환기해야 하는데, 이는 반성을 형상화하며 살아있는 의미를 민감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창조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최종단계이자 연구과정의 목적인 이 단계는 글을 쓰고 다듬는 일은 질적 사유의 발전과정인 만큼 매우 핵심적인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은 이미 글쓰기 자체라고 주장하였다(van Manen, 2014). 연구자는 글쓰기를 통해 흥미의 대상인 현상을 기술하게 되고, 독자는 연구주제인 체험 자체에 몰입하게 된다. 글쓰기는 독

자를 연구 대상의 생활 세계로 안내하게 되는데, 이때 독자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겪었거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빠져들게 된다 (van Manen, 1990).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은 체험의 내적 의미구조를 드러내고 기술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이며, 이는 모든 현상이 이미 해석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김애령, 200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담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의 본질적 의미구조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이 연구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단계로 요약하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진행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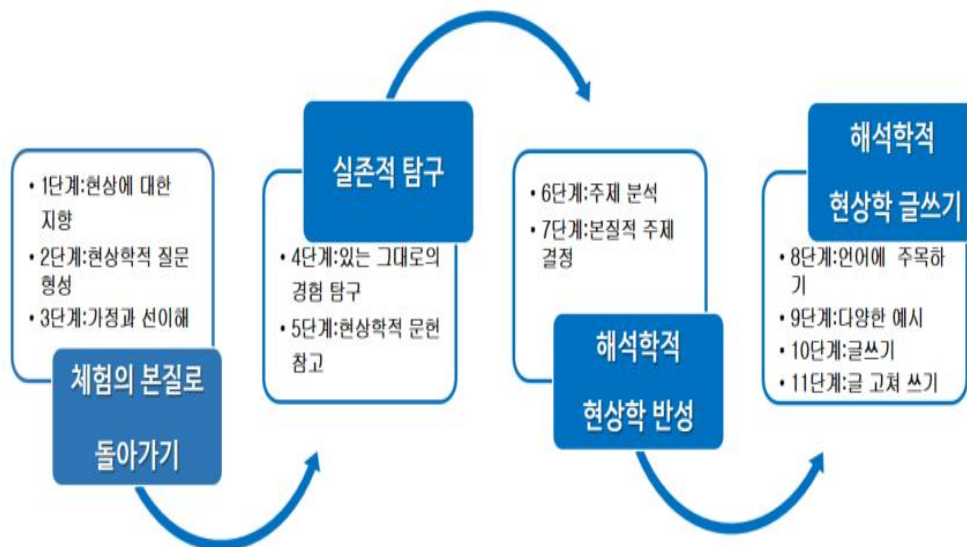


그림 1.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 단계(van Manen, 1990)

### Ⅲ.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 2. 체험의 본질로 돌아가기

##### 1) 현상에 대한 지향

본 연구자는 정신과 병동과 A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전문간호사로 13년간 근무하며 임상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정신장애인이 퇴원 후 직업을 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꿈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대부분 정신장애인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입·퇴원을 반복하여, 본 연구자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 구성원으로 제 자리를 찾길 바라는 만큼 안타까움이 컸었다.

그 후 경북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교 간호학과에 근무하며, D시와 경북 소재의 G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정신간호학 실습 지도를 하면서 정신장애인의 회복 문제를 교육자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은 증상이 안정되어 편안한 모습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실습 나온 간호 학생들과 어울리며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회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주 생활공간이 병원에서 센터로 바뀌었을 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였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의 증상 완화와 기능이 어느 정

도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직업재활서비스를 시작하여 보호작업장, 독립취업 등을 통해 자립하도록 도우려 하였다. 그러나 센터의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직업능력이 훌륭했던 정신장애인도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부적응 등의 이유를 들어 센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가지게 되어 이제는 센터가 아닌 직장으로 출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을 통해 직업유지를 하는 정신장애인은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물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가족과 정신건강간호사의 지지와 직업재활서비스 등 지원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노동 환경 등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는 달라지는지, 직업유지를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에 대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직업유지를 하는 정신장애인의 경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어떤 현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언제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관심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조건을 내포하는 것으로(van Manen, 1990)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것은 정신전문간호사이자 교육자로서 지향인 것이다.

## 2) 현상학적 질문

현상학적 질문은 이해할 수 있고 연구자에 의해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전 단계에서 이 질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을 꾸준히 지향해야 한다(van Manen, 1990). 본 연구자는 정신과 병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 시 정신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탐구를 시작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경험에 대한 보다 깊은 본질을 얻기 위해 네 개 실존체와 관련된 물음을 연구 과정 내내 갖게 되었으며,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며 의미하는 것

은 무엇인지 탐구하게 되었다.

#### 주 질문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무엇입니까?’

#### 네 개 실존체 질문

- 체험된 신체: ‘직업(취업, 일)은 당신의 질환(증상)에 어떤 영향(변화)을 미쳤습니까?’
- 체험된 시간: ‘직업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 체험된 공간: ‘직장은 어떤 공간입니까?’
- 체험된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는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 3)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현상학적 탐구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상식적인’ 선이해, 추측, 가정, 과학적 지식체로 인해 현상학적 물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현상의 본성을 해석하게 된다. 이에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van Manen, 1990). 또한, 후설이 처음으로 도입한 판단중지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경험에 편견을 갖지 않고 탐구하는 것으로 현상학자들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전체와 선입관을 괄호 안에 넣어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van Manen (1990)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수집과 분석하는 동안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 연구자의 선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정과 선이해로 밝혔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자 자신의 가정과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 정신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일하면서 자각지심을 느낄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직업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에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일반인이 가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계속 일할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면 쉽게 그만두려 할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직장에서 일반인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미취업 정신장애인보다 사회적·인지적 기능이 좋을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것이다.
- 정신장애인은 재발로 인해 직업을 잃을까 불안해 할 것이다.

### 3. 실존적 탐구

####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 참여자는 적절성과 충분성의 기준에 따라 Morse와 Field (1995)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적절성이란 연구에서 이론적 필수 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이란 연구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Morse & Field, 1995). 본 연구는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IRB No. 40525-201811-HR-109-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기술을 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정신질환(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ICD-10] )을 진단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증상이 안정되어 취업한 자이다(WHO, 2019).

둘째, 취업하여 중간에 2주 이상 일을 중단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한 자이다.

셋째,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의 형태로 일반인과 일하는 직업을 가진 자이다.

넷째,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기에 동의하는 자 중 한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이다.

2017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공식적 분류체계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 질병분류인 ICD-10을 따르고 있어,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선정기준을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5년이 지나 약물치료로 증상이 완화되어 직업유지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Cheadle과 Morgan (1972)은 정신장애인이 이직을 포함하여 2주일 이상 일을 중단한 적이 없이 6개월 이상 직업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직업재활의 성공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기술을 위해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을 ‘현재까지 2주일 이상 일을 중단한 적 없이 6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독립취업과 지원 고용의 형태로 사업장에서 일반인과 같이 일하는 정신장애인 중 직업에 대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나이대별로 30대 4명, 40대 5명, 50대 2명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자 6명, 여자 5명이었다. 참여자의 교육 수준은 고졸 4명, 대졸 이상 7명이고, 결혼 상태는 미혼 8명, 기혼 1명, 이혼 1명, 동거 1명으로 기혼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미혼과 이혼, 동거인 경우 부모나 형제, 자녀 또는 동거인과 살고 있었다. 또한, 현 직장 근무 기간은 12개월 미만 2명, 12개월~24개월 미만 5명, 24개월 이상 4명이었고, 4개월인 1명의 참여자는 중간에 2주 이상 쉬지 않고 이직을 포함하여 직업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다. 참여자의 취업 형태는 전일제가 8명, 시간제가 3명이고, 전일제 경우 6명이 정규직, 2명이 계약직이었다. 취업 종류는 독립취업이 9명, 지원 고용이 2명이었고, 직종은 판매 및 서비스업에 6명이 종사하고, 생산직 2명, 사무직 2명, 운송업에 1명이 종사하였고, 이 중 1명은 판매 및 서비스업 2개의 직장에 근무하였다(표 1).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연 번 | 성 별 | 나 이 | 교 육<br>수 준 | 결 혼<br>상 태 | 진단명              | 현 직장<br>근무 기간<br>(단위:개월) | 취 업<br>형 태 |
|-----|-----|-----|------------|------------|------------------|--------------------------|------------|
| 1   | 남   | 30대 | 고졸         | 미혼         | 조현병              | 9                        | 전일제/정규직    |
| 2   | 남   | 30대 | 대졸         | 미혼         | 조현병              | 19                       | 전일제/정규직    |
| 3   | 남   | 40대 | 대졸         | 미혼         | 조현병              | 22                       | 전일제/정규직    |
| 4   | 여   | 50대 | 대졸         | 미혼         | 조현병              | 17                       | 시간제        |
| 5   | 여   | 40대 | 대졸         | 미혼         | 기분장애<br>(조울증)    | 25                       | 전일제/정규직    |
| 6   | 여   | 40대 | 고졸         | 동거         | 조현병              | 88                       | 시간제        |
| 7   | 여   | 30대 | 고졸         | 미혼         | 조현병              | 19                       | 시간제        |
| 8   | 남   | 40대 | 대졸         | 이혼         | 비특이성<br>정신증(조현병) | 14                       | 전일제/계약직    |
| 9   | 여   | 30대 | 대졸         | 미혼         | 조현병              | 4                        | 전일제/계약직    |
| 10  | 남   | 50대 | 고졸         | 미혼         | 조현병              | 25                       | 전일제/정규직    |
| 11  | 남   | 40대 | 대졸         | 기혼         | 조현병              | 24                       | 전일제/정규직    |

###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과목을 이수하여 질적 연구에 대해 이론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한질적연구학회 평생 회원이고 질적 연구 세미나에 3회 참여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거쳤고, HA 질적 연구센터의 van Manen 현상학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여, 국내외 학술 문헌을 폭넓게 고찰할 기회를 얻었다. 또한, 연구자는 정신전문간호사로 13년간 임상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담당자의 서비스 제공 경험에 관한 연구 등 2편의 현상학과 1편의 근거 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 4)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 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 특히,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현상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더는 추출할 자료가 없을 때까지 자료수집을 하여야 한다(van Manen, 2016).

본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1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였다.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거친 이후 일개 광역시와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회 복귀시설의 직업재활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연구의 의의와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자료가 포화하였다고 판단될 때까지 추가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11명이었으며, 이는 Creswell (2015)의 현상학적 연구 참여자 수 3~10명에 부합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에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대

한 편한 면담 장소와 시간을 참여자가 정하도록 하여 충분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첫 만남에서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질문은 초기에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현상학적 질문을 중심으로 van Manen의 네 개의 실존체 체험된 신체, 체험된 시간,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에 따른 ‘직업(취업, 일)은 당신의 질환(증상)에 어떤 영향(변화)을 미쳤습니까?’, ‘직업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직장은 어떤 공간입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는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와 같이 비구조화된 질문의 형태를 적용하였다. 면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일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직업(취업, 일)을 통해 변화된 점(심리적/대인관계/사회적/경제적)은 무엇입니까?’와 같이 더 초점적인 질문을 하며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하면서 참여자의 표정과 특별한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메모하였으며, 면담 후 연구자의 느낌과 떠오르는 생각 등에 관한 연구 일지를 기록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핸드폰으로 음성파일 형태로 녹음하고 연구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저장한 후 핸드폰 음성파일은 즉시 삭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녹음 내용을 듣고 표현내용을 필사하였다. 또한, 면담 필사의 정확성을 위해 반복해서 들으면서 진행하였다. 1차 심층 면담 이후 2차 면담은 연구자가 개념화한 내용에 관한 확인과 경험에 대한 추가 질문들로 이루어졌다(부록 2).

## 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과정 동안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 시작 전에 연구목적과 내용, 면담 방법, 녹음과정을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었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면담 도중 힘들어하거나, 사적인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면담을 중지시키고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담을 진행하거나 중단하였다.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는 기호화하

였으며, 면담의 내용과 기록은 연구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저장되고 연구 종료 후 폐기됨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서 참여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 철회 시 수집된 자료는 즉각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참여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자료는 논문에 게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결과의 출판 가능성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참여자 설명서에 명시하여 서면 자료로 참여자가 서명한 면담 동의서와 면담 일지 등 출력물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개인 연구실에 보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였다. 참여자에게는 면담 시 교통비 명목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부록 1).

## 6)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시와 소설, 수기 같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작품에서 정신장애인, 직업과 관련된 텍스트를 참여자의 경험과 분리하여 현상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창의적이고 해석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생활 세계의 네 개 실존체(체험된 신체, 체험된 시간,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해석학적 현상학 글쓰기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생생한 삶의 언어로 기술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전체 자료는 A4 용지 369매 분량이었다. 먼저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냈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을 발견하였으며, 그 후에 문장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진술과 연구자의 선이해나 경험과 유사 여부를 살펴 선행연구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상반된 부분을 괄호 치기를 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필사본을 여러 차례 정독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의미 있는 문장에 밑줄을 그었으며, 의미 있는 단어나 문장은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를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주제 묶음을 구성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로 여러 번 재구성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묶인 주제들을 성찰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의미나 주제로 범주화된 문제를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히고, 참여자가 경험한 구조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생활 세계의 네 개 실존체인 체험된 신체, 체험된 시간,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를 중심으로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분류하였으며,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주제를 개념화하였다.

그 외에도 참여자의 경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실존적으로 탐구하고자 연구자의 경험과 문학작품, 예술작품, 영상작품에서 같은 주제와 의미를 드러내었고, 참여자 진술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피며,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면담 진행 과정에서의 중간 분석을 통해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분석을 준비하였다. 모든 면담과 녹취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생생한 현장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에 접근을 가능하게 할 만큼 자료의 진실성이 있는지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분석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때는 주저함 없이 참여자에게 확인 작업을 요청하였다.

## 7)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등의 질적 연구의 엄밀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자료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자 중 면담 가능한 2명이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였고 면담 중에는 경험에 대한 참여자의 정서 반응, 의미, 어조, 제스처 등을 기록하여 녹음 필사 내용과 통합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제시하고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나 참여자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지적하도

록 하여 텍스트를 수정 보완하였다.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와 연구자들에게 텍스트 검토를 의뢰하여 타당성을 높였다.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양한 자료에서 찾아낸 의미들과 연관을 지어 개연성을 높였으며,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 방법을 통해 이직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직업유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 주관적인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에서 더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와 본질이 명확한 도출될 때까지 여러 단계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은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연구에도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필사 등의 모든 자료수집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van Manen, 1990)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의 절차를 정확히 숙지한 후 이를 근거로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글쓰기를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진술한 내용을 문학 및 예술작품 등 다른 출처의 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일관성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객관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선이해와 가정, 편견 등을 미리 밝혀 연구 일지에 기록하여 반성의 자료로 사용하였고, 자료수집과 분석 및 글쓰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연구결과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 8) 해석학적 현상학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 (1) 텍스트 구성

수집한 자료는 녹음 자료 필사, 자료 분류, 목록 작성과정으로 분석 텍스

트로 완성하였다.

필사 작업은 녹음파일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사용한 용어, 발음, 문장을 그대로 기록하고 현장 노트에 기록한 메모, 참여자의 동작, 표정, 어조 등은 녹음 내용의 필사본에 반영하였다. 녹음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의미가 모호할 경우 전화 통화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정된 필사본은 참여자별로 면담 날짜에 따라 나열한 후 참여자의 이름을 암호화하여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 (2) 텍스트 분석과 해석학적 반성

본 연구자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은 van Manen (1990)의 세분법, 선택적, 전체론적 방법의 해석학적 현상학 분석과정을 거쳤다.

세분법은 문장과 문단을 읽은 후 문장과 문단에서 알리고자 하는 현상이나 경험이 의미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가 내용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경험이나 현상의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택적 방법은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경청하거나 읽은 후 참여자의 진술이나 어구가 특별히 본질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론적 글 읽기 방법에서는 전체로서의 텍스트의 기본 의미나 주된 의의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필사 자료 전체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각각이 기술하고 있는 경험을 통찰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해 13개의 주제와 5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 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과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

본 연구자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을 개인적으로 기술하고자 인과적 설명이나 해석적 일반화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접 기술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는 졸업 후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8년간 근무하

며 많은 정신장애인의 경과를 지켜보았다. 장기간 입원한 정신장애인은 퇴원 시 다시 병원에 오지 않고 취업하여 사회에서 잘살겠다고 약속하며 기쁜 마음으로 병동을 떠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좌절감에 휩싸여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랜 시간 좁은 새장에 갇혀 날갯짓을 잊어버린 새처럼 정신장애인은 병원 밖에서 사는 법을 잊어버렸고 기댈 곳도 없었다. 연구자는 이런 정신장애인의 모습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책에서만 나오는 운 좋은 정신장애인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정신장애인은 병원에서 지내며 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며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D정신 전문병원의 개방 병동으로 이직을 하여 새로운 환경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직한 D정신 전문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정신 전문병원으로 이름이 꽤 알려져 있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보호작업장, 클럽하우스, 직업재활, 주거시설 등과 연계하여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곳이었다. 개방 병동 정신장애인은 그동안 연구자가 봐왔던 폐쇄병동의 정신장애인보다 전반적으로 기능이 좋았으며 퇴원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회 복귀를 꿈꾸었다. 그러나 이전 근무하던 병원의 정신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회 복귀와 관련된 서비스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여 입원한 예도 많았다. 정신장애인에게 사회 복귀란 커다란 바위에 달걀 치기 같은 가능성이 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이후 정신전문간호사 과정 중 대학병원의 폐쇄병동, 사회 복귀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다양한 임상 현장을 보면서 치료환경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 경험을 통하여 타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견문을 넓혀서, 연구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과 복지로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뒷걸음질하는 상황에 대해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서비스는 진심이 없는 메아리 같았고 정신장애인 또한 그 메아리에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 G시의 4년제 사립대학교의 정신간호학 임상 실습을 지도하면서 임

상 실습 기관이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업을 유지하고 사회 복귀에 성공한 정신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 사실에 정신장애인의 희망 씨앗을 발견하였다.

이에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의 역할의 확장과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성공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을 통해 많은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길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 10) 어원 추적

어원(語源)은 그 말이 생겨난 역사적 근원으로(이희승, 2007), 그 말의 역사적 근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근원적인 경험과 생생한 연관이 있는 본래의 생활형식을 만난다(van Manen, 1990).

(1) 정신(精神): 정신(精神)은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뜻하며(이희승, 2007), 옛사람들은 정신(精神)이나 정기(精氣)는 쌀로 만든 밥을 먹어야 생긴다고 생각한다(조한구, 2006). 정신(mind)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mind)의 불안 또는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바로 ‘편안함(ease)이 아닌(dis) 마음의 상태’로서 영어식으로 나타내면 dis-ease이다. 이것은 질병을 의미하는 disease로 합성된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공포와 같은 스트레스는 결국 부정적 심리적 에너지(정기精氣)로 작용하여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정신의 부정적 정(精氣)가 정신(마음)과 몸에 영향을 미쳐 편안하지 않은 상태, 즉 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0).

① 精: 정할(짚을) 정 (쌀米 + 푸를 靑)

쌀(米)을 푸른 색깔(靑) 즉 깨끗하게 곱게 짚는 것을 精(정)이라 하며 ‘깨끗하다’, ‘정성스럽다’라는 뜻을 의미한다(조한구, 2006).

② 神: 귀신 신(보일 示 + 신 申)

신(申)과 만물(萬物)을 주재하는 신(示)의 뜻을 합하여 ‘귀신’이나 ‘신령’, ‘정신’이라는 뜻을 의미한다(이희승, 2007).

③ 정신(mind)

마음, 정신, 기억, 이성, 인간, 생각을 뜻한다(한국영어영문학회, 2006).

(2) 장애(障礙): 가로막아 중간에 거치적거리는 것(이희승, 2007)과, 불능(disability)은 기능의 장애를 뜻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세 개의 축으로 설명하며, 신체·정신적 기능의 상실이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조 능력이나 직업유지에 제한으로 인하여 개인 삶의 영역에서 사회참여에 제약이 따른다(WHO, 2001). 반대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를 통한 손상치료와 다양한 방법의 활동과 참여를 통한 기능 회복을 강조한다.

① 障: 막을 장

가로막히다. 보루(堡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 둑(높은 길을 내려고 쌓은 언덕). 병풍(屏風). 발두둑길. 지경(地境: 땅의 가장자리, 경계). 칸막이를 의미한다(조한구, 2006).

② 礙: 거리낄 애

거리끼다. 장애(障礙)가 되다. 지장(支障)을 주다. 방해하다(妨害--). 거치적거리다. 거북하다. 막다. 그치다. 해치다(害--)라는 뜻을 가진다(조한구, 2006).

③ 불능(disability)

able은 라틴어 동사 habeo ‘가지고 있다’에서 파생되어 habilis는 ‘적합한, 손재주 있는, 능력 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고대 프랑스어로 넘어가면서 hable가 되었고 h가 사라지고 able로 변화되었다. able(능력, 민첩성)이 dis(아닌) 상태를 영어식으로 나타내면 dis-able이다. 이것은 불능(장애)을 의미하는 disable로 합성된다. 본디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 또는 소실된 상태를 의미한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0).

(3) 직업(職業): 직업(職業)은 관직 상의 일, 일상 종사하는 업무, 생계를 세우기 위한 일, 생업(生業). 자기 능력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의미한다(이희승, 2007).

① 職: 벼슬 직 (귀 耳 + 소리 音 + 창 戈)

소리(音)를 듣고(耳) 기록한다(戈)는 뜻을 이용하여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가진다(조한구, 2006).

② 業: 업 업

業자는 악기를 들고 다니며 생업을 이어가던 모습에서 ‘일’이나 ‘직업’이라는 뜻을 가진다(조한구, 2006).

③ 일하다(work)

고대영어 weorc, worc(어떤 것이 다 되어있는 것,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신중한 행동), (자발적이거나 요구된)행동, 진행함, 일, 업무, 제조된 것, 힘들게 일함, 숙련된 자의 직업, 기술 등에서 나왔으며, 게르만어 werkn(일)에서 파생되었다. 에너지(energy)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그리스어 energond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en(~안, ~에)과 ergon(일)의 합성어로 영어식으로 at work, in work의 의미를 지닌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0).

이상과 같이 어원을 추적해 본 결과 정신은 ‘깨끗한 영혼이나 마음’의 의미를 지녔고, 직업은 ‘주체적으로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생업’의 의미가 있었다. 정신과 직업은 그 어원상 사람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상태에서 신이 부여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맑은 소임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은 망상과 환각 등으로 현실과 질환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그로 인해 맡은 바 임무 즉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 관용어 및 속담 분석

관용어나 속담은 오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인

간의 생활 경험이 녹아있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일에 대한 현상과 정신장애인의 세계를 함축하는 관용어구를 속담, 고사성어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인의 명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현상학적 분석을 위한 민감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1) 일과 직업

관용어나 속담에서 직업과 일은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능력에 따라 생계유지와 존경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①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자의 명언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말한다.

② 일이란 좋은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에 의하면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분 좋은 피로와 보수를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③ 직업이 주는 하나의 은혜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직업에 전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멀리할 수 있고, 이는 하나의 큰 은혜라고 말한다.

④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직업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 되고, 그 기반이 없다면 인간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직업에 귀함과 천함이 없다는 의미이다.

(고사성어) 부무경업 화무상주(富無經業 貨無常主)

부자가 되는 데는 직업의 귀천이 없고 돈은 일정한 주인이 없다.

(고사성어) 안거낙업(安居樂業)

내가 사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이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직업이다.

⑥ 일은 할 타이고 도지계는 맬 타

일의 능률은 자기 하기 나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2) 정신장애인

관용어나 속담에서 인간이 정상에 벗어나는 마음이나 행동을 했을 때 알 잡아 욱하며 정신이 이상하거나 환장, 미쳤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마음)과 감정, 신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정신장애인은 인지적 문제와 감정적 문제, 신체적 문제가 병으로 나타난다.

### ① 미친 여편네 떡 퍼 돌리듯

정신 나간 미친 여자가 헤아림도 없이 있는 떡을 닥치는 대로 퍼서 돌리듯 한다는 뜻, 타산 없이 있는 대로 마구 내다 쓰거나 헤프게 쓰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정신은 꿈무니에 차고 다닌다

정신이 아주 없다는 말이다.

### ③ 정신을 차려야 염불을 하지

일을 잡치는 자를 보고하는 말이다.

### ④ 정신줄 놓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가다라는 뜻이다.

### ⑤ 정신이 나가다

얼빠지다. 정신 나간 소리라는 말이다.

### ⑥ 정신이 들다

경험이나 세련에 의하여 사물을 분별할 만한 정신을 가지다, 정신 차리다라는 뜻을 가졌다.

### ⑦ 마음(을) 쓰다

(사람이 일이나 문제) 신경을 써서 깊이 생각하거나 걱정을 이르는 말이다.

### ⑧ 마음이 무겁다

(사람이) 걱정이 많다는 말이다.

### ⑨ 마음을 빼앗기다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사로잡히어 쏠리게되다라는 말이다.

### ⑩ 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어려운 일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는 말이다.

⑪ 마음에 있어야 꿈을 꾸지

생각이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12) 문학과 예술작품에 나타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

인간의 원초적 경험은 여러 형식의 문학과 예술작품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이야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작품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실천적인 통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험의 원천으로 역할을 한다(van Manen, 1990).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을 주제로 다룬 작품은 미미하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과 예술작품을 토대로 직업의 유지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으로 시 1편, 소설 1편, 수기 5편, 예술작품 그림 6편, 영상예술작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1편, 영화 1편, 신문 기사 3개를 인용하였다.

### (1) 문학작품

#### ① 시

시는 개인의 정신생활이나 자연, 사회의 경험을 운율을 지닌 간결한 언어로 변형시키는 가장 집약된 문학의 한 장르로 살아있는 인간 경험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van Manen, 1990). 정신장애인 작가의 경험을 통하여 살아있는 감정과 생각, 사회적 관계, 사람들의 편견과 희망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 몽당 색연필(정해미, 2019)

첫 번째, 시인은 만성 정신장애인으로 7월에 입사하면서 7년 동안 겪은 자신의 성장 이야기이며 직업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 희망을 표현하였다.

## 일

일은 나의 희망이자 꿈이다.  
일을 통해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  
일은 나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일을 통해 나는 의사소통을 한다.  
일은 나의 미래이자 투자이다.  
일을 통해 나는 자아실현을 꿈꾼다.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나를 위한 스트레스  
일을 통해 즐거운 건  
나를 위한 추억.  
일을 통해 사람과 관계 맺는 건  
나의 존개가 있는 것.

나는 일이 좋다!

두 번째, 시인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일반인과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였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정신장애인입니다.  
나는 조현병 장애인입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타인을 해칠 염려가 있는 대상이 아닌,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가족들은 나에게 짐이 아닌,  
존재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해줍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일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시설에서 근로장애인이고 친구도 많습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과 버금가는 능력과 재주가 있습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장애인입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는 짐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 ② 소설

소설은 상상력과 사실의 통일적 표현으로써 인생과 미를 산문체로 나타낸 예술, 시적인 환상 소설로부터 르포르타주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며, 경험 또는 상상적인 사전 속에서 진리를 구상화하여, 독자에게 감동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이다(이희승, 2007). 이에 본 연구자는 인간의 서사시로 일컫는 소설 속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 뷰티폴마인드(Nasar, S., 2011)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뷰티폴 마인드’ 원작으로, 존 내쉬라는 한 위대한 수학자의 삶에 조현병이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 등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위대한 사건을 만들었는지를 일깨워주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사회에서 만든 틀 안에 갇힌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그들의 능력과 재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평가절하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만남에서 바이블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은 내쉬의 말은 따로 있었다. 그 말 때문에, 바이블은 초연한 관찰자이자 객관적인 정보 제공자 관점에서 열렬한 대변자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들이 교수 클럽에 들어서기 전, 내쉬는 우물쭈물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교수가 아닌데요.” 이 위대한, 위대한 학자가 자기 자신을 교수 클럽에서 식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이블에 보기에는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너무나 부당한 사태였다.

두 번째, 세계적인 지식인들조차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증상을 곁핍으로 인식하고 개성을 가진 한 인격체를 곁핍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스탈은 또 여러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문의한 적이 있어서, 내쉬의 병이 우울증이나 조증과는 다른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후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곳의 정신과 의사를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신과 의사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자니 정신분열증 환자는 인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쉬는 과거에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린드백은 바이블과 쿤의 보고서를 믿고, 내쉬의 상태가 크게 좋아졌으며 사실상 회복이 되었다고 위원들에게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스탈은 아주 회의적이었다. 그가 문의해 본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분열증이 만성이며, 회복이 불가능한 퇴행성 질병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건 아주 비극적인 병입니다. 잠시 진정될 수 있지만, 사실상의 회복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정신장애인의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객관적인 평가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통해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린드백은 이 문제에 자신이 지성이 아닌 감정으로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수상 이전에는 이미 저명한 테다가 충분히 존경을 받고 있었다. 노벨상은 이미 영예로운 자에게 관을 씌워 주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내쉬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 린드백은 내쉬가 어느 모로 보아

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과 “그의 비참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후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양지로 들어 올리는 데 한 몫한 셈이지요. 어느 면에서는 그를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아주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정신장애인은 평범한 일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가족, 친구, 사회적 공동체에 연결되어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함을 표현하였다.

스톡홀름에서의 동화 같은 일과 노벨상 수상자라는 높은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삶은 고요하다. 내쉬 가족은 아직도 앞뜰에 수국이 피어나는 허름한 보온벽돌 집에서 산다. 프린스턴 기차역 맞은편 골목 바로 옆집이다. 새로 보일러를 들었고, 새로 지붕을 얹었고, 새로 가구 몇 점 들였지만, 그게 그것 같다(내쉬는 또 집값 할부금 반액을 미리 갚을 수 있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수의 친구들 - 짐 망가나로, 펠릭스와 에바 브로더, 아르망과 게이비 보렐 등 -은 전부터 이미 수년째 만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일과는 남들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았다.

### ③ 수기

수기는 필자의 특정한 경험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 적은 기록으로 필자의 생생한 실존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된다(이희승, 2007). 본 연구자는 ‘대한조현병학회 청년회복수기’를 통해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질병의 발병에서부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정신장애인의 생생한 경험과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3).

#### - 다시 꾸는 꿈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직업 연계에서부터 적응까지 가족과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동료 등 많은 사람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몇 개월 쯤 지나 민영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카페 일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원 서

류를 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작년 7월부터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략... 하지만 카페 매니저님의 격려와 배려로 느리지만, 천천히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도 민영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아이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근무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법 일이 많이 빨라졌고, 민영이의 카푸치노가 제일 맛있다고 말하는 손님도 생겼다고 합니다.

#### - 내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길

정신장애인의 발병과 재발, 회복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가족들에게 정신장애인의 변화는 가족 전체의 행복이고 희망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다니게 되면서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가족의 지지와 꾸준한 약물복용이 유지된다면 환청 같은 증상이 남아 있어도 충분히 극복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자신이 먹는 약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는 행복 약’이라고 합니다. ...하략...

#### - 내 삶의 현을 고르다

정신장애인은 인간관계와 잔여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흐르고 차츰 나아짐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일은 즐거웠지만 인간관계는 힘들었습니다. 매니저와의 마찰, 알바생과의 트러블 등 증상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중략... 무시해도 안 되면 다른 직원이랑 수다 떨면서 잊어보려고 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음료를 제조하는 일에 빠져들기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죠. 그러면서 차츰 나아져 갔습니다.

#### - 봄날

정신장애인은 발병 후 오랜 치료기간과 사회 단절로 인해 발병 전보다 기능을 상실했고 일을 하면서 상실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병원에 다니면서부터 다시 일도 하기 시작했다.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고 생기는 수입은 저축을 하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아오면서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중략...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 되도록 일을 하려고 했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갔다.

#### - 정신질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일반인에 의해 편견보다 오히려 정신장애인 스스로 편견 속에 갇혀 세상과 담을 쌓고 있을지 모른다. 정신장애인은 병을 받아들여야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용기는 취업과 연결되고 정신장애인은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결국 자신의 한계에 대해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 스스로 저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제한적인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이 체념하듯 너리에 박혀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략... 인사복지팀의 일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마음가짐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을 깨고 장애인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성실하게 일했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도 편견 없이 동료로 대해 주면서 대화도 늘고 업무수행능력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신장애인이라도 업무수행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저 스스로 제한을 뒀던 저 자신에 대한 한계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 (2) 예술작품

현상학자들이 문학적 원천들(시, 소설, 이야기, 희곡 등)을 현상학적 글쓰기를 위한 사례자료로 그리고 텍스트 원천으로 흔히 사용하지만, 비담론적인 예술 자료 역시 현상학적 인간 과학을 위해 사용된다. 예술의 대상은 시각적·촉각적·청각적·동적 텍스트들이고 이런 예술 생산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가의 초월된 형상들로 변형된 경험들이다(van Manen, 1990).

## ① 그림

G-mind 정신건강 예술제의 작품은 정신장애인이 표현의 주체로서 순수하게 창작한 아르브뤼(artbrut)를 전시하였다. 이 작품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작품의 감상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보았다(부록 3).

### - 빛을 향해 나는 새

작가는 정신장애 3급으로 현실과 부딪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재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하며, 사회에 나가기 위하여 장애를 이기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 생각하였다. 사회로 나가기 위해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닌 하늘을 나는 새가 되기 위해 두려움 극복과 자유로움을 통찰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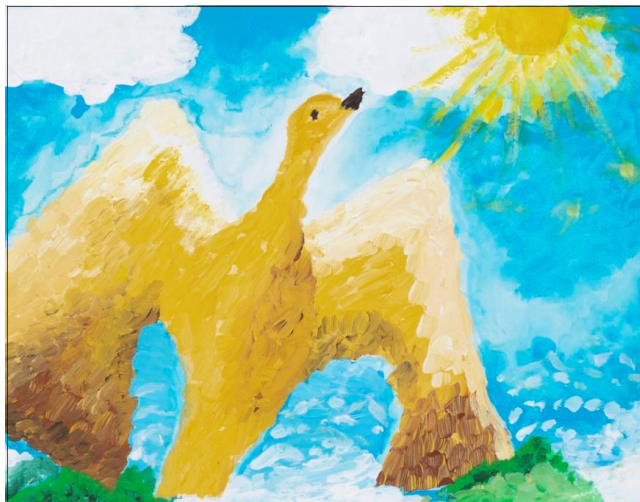


그림 2. 빛을 향해 나는 새

### - 커피 그리고 나

작가는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으며, 그림 그리는 것과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꿈 많은 정신장애인이다. 작가는 병이 나으면 바리스타가 되는 게 꿈이

며 희망이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자신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 3. 커피 그리고 나

#### - 웃음

작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넘기고 싶었고, 각박하고 변화무쌍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웃음

- 참여자 A의 작품

참여자 A는 발병 전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오전에는 편의점, 오후에는 마트에서 일하는 활력이 넘치는 정신장애인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정신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함을 통찰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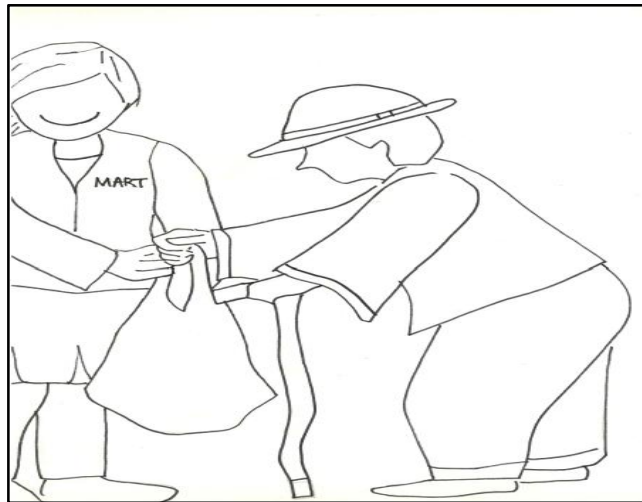


그림 5. 참여자 A의 작품

- 참여자 B의 작품

참여자 B는 새벽에 물건을 배달하는 운송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때 일해야 하지만, 운전할 때 고요함을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B는 정신장애로 경력이 단절되어 10년 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직업을 가지면서 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그림 6. 참여자 B의 작품

- 참여자 C의 작품

참여자 C는 발병 전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꿈이 많았다. 현재에도 증상과 싸우며 과거에 꿈꾸던 직업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며,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직업을 가진 후 긍정적으로 변화 참여자의 표정을 통해 꿈을 이루므로 나타날 수 있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 7. 참여자 C의 작품

### (3) 영상예술작품

영상예술은 현 사회의 이슈와 관계가 깊은 만큼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영상예술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을 위주로 살펴보았고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영화, 신문 기사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대리 경험과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 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극단적인 허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개에 따라 구성된, 기사·소설·영화·방송 프로 따위를 말한다(이희승, 2007). 이에 본 연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부록 3).

#### - 다큐 시선,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2019)

첫 번째, 조현병과 관련된 사건·사고 뉴스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갑자기 취소된 것에 대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속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레이션: 요즘 신문에 사건, 사고 위주로 보도가 많이 돼서 힘드실 때도 있겠어요.

컴넷하우스 시설장: 매우 속상하죠.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계셨는데요. 조현병 사건이 땅땅땅 터지자마자 사업주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곱명의 회원이 (취업) 취소가 갑자기 됐어요. 다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정신장애인이 일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차별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었다.

나레이션: 일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당사자: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인데. 위의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나를 인정 안해주고 틀린 사람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선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나래이션: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요.

당사자: 네. 못 채우는 내리는 경우가(생겨요).

세 번째, 처음 직업을 가진 정신장애인의 낯선 환경 속에 대한 얼떨떨한  
기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래이션: 재활센터에서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취업입니다. 취업  
은 안정감과 함께 생활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은주씨도 그런 당  
사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이 병원에 시간제 근무자로 출근해 주방 보조 일  
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어제요.

나래이션: 어제부터 했어요? 이 일은 어때요? 재밌어요?

당사자: 네 신기해요.

나래이션: 신기해요?

당사자: 아직은 조금. 고맙다고 얘기해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신기해  
요. 엘리베이터(잡아주는 것 갖고) 뭐가 고마운지...

네 번째, 정신장애인가 직장에서 증상관리를 잘하고 인정을 받으며 정신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 다른 정신장애인의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래이션: 또 다른 당사자 장명익씨. 이 병원에서 전일제 근무를 합니다. 김은주  
씨 취업에는 2017년 같은 당사자 인턴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된 명  
익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병원 경영지원팀: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 (정신장애인) 인식이 개  
선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정신장애인 분들은 저희 병원  
자체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추가 채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래이션: 선생님은 20대에 발병하셨으니까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신거예요?

당사자: 네 그렇습니다.

나래이션: (감정) 조절이 잘되는 상태인가요?

당사자: 예전에는 안 됐는데 그래서 혼자서 횡설수설도 하고 정신 상태가 안 좋  
고 대화도 안 되고 이랬는데 한 번 하면 보통 직장에서 3년 이상 5년

일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요령이 생기고 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지켜봐 주고 있고 그래서 잘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줄고 그리고 일도 재미있고.

다섯 번째, 정신장애인의 부모는 직업이 정신장애인의 재발 예방과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한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레이션: 취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아이들을 지켜본 부모들이 잘 압니다.

한국조현병원우회 아버지 대표: (아들이) 지금 10년(동안) 다니는 직장(장애인근로사업장)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맞아서 현재 이 정도로 제가 (아들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안 맞았으면 우리 애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은.

한국조현병원우회 어머니 대표: 너무 이렇게 (비장애인)처럼 그렇게 잘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답게 대접을 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경우는 그래요. 상당한 발전이 있고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걸 국가가 알아야 하거든요.

여섯 번째, 정신장애인의 뒷바라지에 힘든 삶을 살던 부모는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린 정신장애인 자녀를 보고 안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 저렇게 살아도 용돈 주고 그러니까.

나레이션: 부모님께요.

아버지: 네 한 달에 20만 원씩

정신장애인(딸): 저번 달에 30만 원 드렸죠.

아버지: 저번 달에는 30만 원 줬고

정신장애인(사위): 저번 달에 우리가 일을 좀 했거든요. 파배기 과자 공장에서...

아버지: 저는 죽어도 눈 감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재 때문에 내가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병원에 입원시킬 때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 젊은 직원들이 애를 잡은 상태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문을 딱 닫아버리는데 형무소 한 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나 오면 말이지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울기도 엄청나게 울었고. 그런 세월을 십몇 년을 겪었습니다. 현진이 밑에서 한 십오 년 될거다. 그렇게 저렇게 인연을 맺고 사니까 더 바랄 게 없지.

## ② 영화

영화는 연결된 일련의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사해 재현시킨 움직이는 영상이나 그 기술을 뜻한다(이희승,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 ‘위 캔 두 댓’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부록 3).

-위 캔 두 댓! (Si Puo Fare, We Can Do That, 2008)

이 영화의 배경은 1983년 이탈리아 변두리 정신병원 부속의 ‘협동조합 180’이다. 이곳은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자리아가 만든 바자리아법(1978년 발효)에 의해 정신병원이 폐쇄되면서 갈 곳 없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정신장애인 10명과 매니저 넬로가 조합원으로 지위와 일을 통해 자아실현이라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매니저 넬로는 정신장애인 협동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살려 ‘예술’을 도입한 마룻바닥 공사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은 조합원들과 넬로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갈수록 번창하며 정신장애인 조합원 각자의 재능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입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자활꿈터를 이룬다. 일반인과 생각이 다르고 느리지만, 일반인과 같이 각자의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



그림 8. 위 캔 두 댓! (Si Puo Fare, We Can Do That, 2008)

첫 번째, 마룻장이 조합원 루카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지만, 약물의 부작용으로 작업이 힘들고 다른 조합원 정신장애인도 약물의 부작용으로 직업능력에 한계에 부딪혔다.

대사내용: 마룻장이 조합원 루카가 약물 부작용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넬로와 조합원 동료들이 루카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

넬로: 루카씨.

루카: 엿이나 쳐먹어, 더 이상 일 안 할 거야.

넬로: 왜 그러는데요?

루카: 졸려.

넬로: 더 이상 잠만 자게 할 수 없습니다.

루카: 그만해!

넬로: 알았어요. 그럼 나도 잠이나 자죠. 다들 졸리지 않아요? 네 졸려요(루카와 같이 침대에 눕는다). 무슨 일입니까?

루카: 건딜 수가 없어요. 약이 내 힘을 갉아먹고 있어요. 전문가는 일을 놔두고 잠들지 않아요.

넬로: 다들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요.

빠비오: 루카는 위험해요. 매일 8mg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 2mg만 복용하고 있는데.

넬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시오: 전 7시에 자면 일어나질 못해요.

니키: 저는 3년 동안 자위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이전에는 정말 황홀한 자위를 했더랬어요.

빠비오: 저는 작업기한을 열 번씩 적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두 번째,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정신장애인, 매니저, 의사의 목적이 동상이몽임을 알 수 있고 정신장애인 욕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복지정책과 직업재활 담당자의 복지이론의 엇박자가 결국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도 결국 욕구가 있는 인간이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대사내용: 넬로는 사업을 넓히기 위해 회의를 하는 장면

넬로: 파리에서 계약을 따냈어요.

의사: 우린 계속 발전할 거고, 다른 모든 협동조합의 모범이 될 겁니다.

넬로: 우리는 더 조직적이어야 하고 기업화돼야 하는 게 분명해요.

의사: 여기서 모자이크를 준비하고 저기서 조립해야지요.

넬로: 투자, 원료, 사람, 기계가 필요해요.

의사: 은행이 우릴 도울 거예요.

넬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장비를 들여와야 해요.

지시오: 전 임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넬로: 약간의 희생입니다. 나중에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지시오: 난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요. 미래는 몰라요. 전 반대에 한 표요.

미리암: 저도 반대요. 기지오는 여자친구한테 팔찌를 사줘야 해요. 그리고 저는  
금발로 염색해야 하거든요.

넬로: 사랑은 정말 좋은 거죠. 그래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협동조합이  
성공하면 정신병원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루까: 전 반대요.

넬로: 그깟 팔찌 때문에 파리 일을 포기하자고요?

니키: 우리도 월급이 필요해요. 차도 사야 하거든요.

까를로: 전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될 거예요.

넬로: 까를로 마저도 여피족(고소득 전문가)이 됐군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생  
각은 안 해요?

빠비오: 전 괜찮아요. 휴가를 갈 거예요. 가페오 마레 호텔에 예약해놨거든요. 3  
단 우산이 있거든요(반대의 표시로 손을 든다).

...중략...

넬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차분히 토론해보죠.

(잠시 후)

전 포기 안 해요. 저 사람들 미쳤어요. 저 사람들이 성질나게 하면, 나도 성  
질낼 겁니다.

의사: 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투표한 건 당신의 위대한 승리예요.

### ③ 신문 기사

신문은 뉴스·논설 및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을 '신문 기사'라 한다. 기사는 사실을 적어 신문·잡지 등에 실리며 본 연  
구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부록 3).

-정신장애인이었기에 취업이 두려웠다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2018)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취업에서 차별과 선입견이 심해 취업의 문은 더 좁고 힘든 현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 이후 정신장애인의 고용지원과 촉진에 관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허성숙(여)씨는 ‘정신장애 근로자로서의 노동과 삶’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기 때문에 취업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며 “취업을 하기 원하는 과정은 멀었고 선택의 폭은 너무나 좁았다”로 말했다. …하략…

-직장 내 정신·발달장애인 든든한 버팀목 (이슬기, 에이블뉴스, 2018)  
정신장애인에 관한 바른 이해와 배려가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가을부터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발달장애에 관한 지식 및 필요한 배려를 교육하는 ‘정신·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인’ 양성 강좌를 시작했다.

‘정신·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강좌 개설 배경 및 강좌 내용을 최근 발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세계장애 동향’을 통해 소개한다. …중략… 이 양성 강좌가 정신·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도 정신·발달장애인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힘들게 취업한 정신장애인 내모는 편견의 벽(송진영, 국제신문, 2018)  
사회 내 직장 내 편견으로 불편하고 정신장애인 스스로 편견의 벽에 갇혀 직업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심한 취업난 속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비장애인보다 훨씬 힘들다. 신체장애가 아닌 정신장애가 있다면 취업의 문은 더욱더 좁다.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약 8.3%(전체 장애 인구 취업률 36.6%)에 불과하다. 만일 정신장애인 이 어려운 관문을 거쳐 취업했어도 직장생활은 험난하다. …하략…

## IV. 연구결과

### 1.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분석과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경험, 어원 추적, 정신장애인의 직업 경험을 표현한 문학작품과 예술작품, 영상자료 등에서 묘사된 정신장애인의 생활 세계를 참여자의 경험에 비추어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11명의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자료에서 밝혀진 주제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van Manen (1990)이 제시한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신체, 체험된 시간,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그림 9). 그 결과 13개의 주제와 5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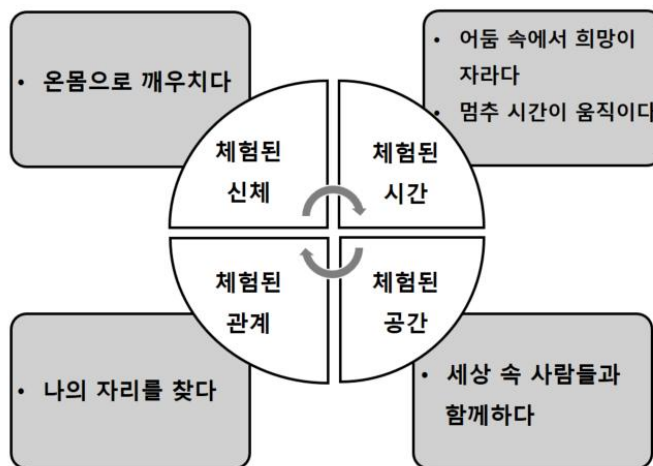


그림 9.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네 개의 실존체

체험된 신체와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온몸으로 깨우치다’였으며, 이에 대한 주제는 ‘직업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함’, ‘장애와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견디기’, ‘일은 나의 보배’이었다. 체험된 시간과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자라다’와 ‘멈춘 시간이 움직이다’로 2개가 도출되었고,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자라다’에 대한 주제는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한 걸음씩 내딛기’, ‘평범한 내일 기대하기’로 구성되었다. ‘멈춘 시간이 움직이다’에 대한 주제는 ‘고립감과 무기력에 맞서기’, ‘정신장애 편견 떨쳐내기’,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삶’으로 구성되었다.

체험된 공간과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나의 자리를 찾다’로 도출되었으며, 주제는 ‘자신감이 생겨 안정됨’, ‘서툰 경험이 쌓여 나의 몫을 해냄’으로 구성되었다. 체험된 관계와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세상 속 사람들과 함께하다’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제는 ‘성장해 나감에 감사함’, ‘나의 존재감을 발견함’으로 구성되었다(표 2).

표 2.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적 주제

| 실존체    | 본질적 주제         | 주제                 |
|--------|----------------|--------------------|
| 체험된 신체 | 온몸으로 깨우치다      | 직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함    |
|        |                | 장애와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견디기 |
|        |                | 일은 나의 보배           |
| 체험된 시간 |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자라다 |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
|        |                | 한 걸음씩 내딛기          |
|        |                | 평범한 내일 기대하기        |
| 체험된 시간 | 멈춘 시간이 움직이다    | 고립감과 무기력에 맞서기      |
|        |                | 정신장애 편견 떨쳐내기       |
|        |                |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삶      |

(표 계속)

표 2. (계속)

| 실존체    | 본질적 주제         | 주제                 |
|--------|----------------|--------------------|
| 체험된 공간 | 나의 자리를 찾다      | 자신감이 생겨 안정됨        |
|        |                | 서툰 경험이 쌓여 나의 몫을 해냄 |
| 체험된 관계 | 세상 속 사람들과 함께하다 | 성장해 나감에 감사함        |
|        |                | 나의 존재감을 발견함        |

### 1) 체험된 신체: 온몸으로 깨우치다

이 본질적 주제에서 참여자는 기억력과 판단력은 떨어지고,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겨우 잡은 직업 기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낯선 직업환경 속에서 새로운 업무에 몸으로 부딪쳐 익혀나갔다. 정신장애라는 걸림돌 때문에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참여자는 시행착오를 통해 적응하며 점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되찾았고, 참여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직업유지의 원동력으로 삼는 몸의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주제는 ‘직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함’, ‘장애와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견디기’, ‘일은 나의 보배’로 체험된 신체가 도출되었다.

#### (1) 직장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함

이 주제에는 참여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증상으로 자신의 업무나 동료 및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눈치를 보는 괴로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게다가 참여자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쉬우나 장애를 가진 자신들에게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경험 부족과 미숙한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쉽게 직업을 그만두겠다는 생각과 어렵게 얻은 직업을

읽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양가감정을 이야기하였다.

계속 일 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날 이해해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한 번씩 긴장을 많이 하면 힘든데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알아서 통제해야죠. 너무 자주 그러면 솔직히 내가 사장이면 자 왜 저러노 하고 자르면 그만이잖아요.(참여자 1)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속을 썩이고 이렇게 사건 터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고....(참여자 3)

거기는 돈이 마이너스 되면 제가 물었어야 했거든요. 돈을 하루에 만 원씩 깨 먹을 때도 있고 수입을 받아도 만 원씩 깨 먹으면 한 달에 한 십만 원 깨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참여자 8)

## (2) 장애와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견디기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장애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주나 상사로부터의 많은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심리적 압박과 피로를 호소하였다. 장애로 고립된 생활을 하던 참여자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세상의 방관자에서 사회 속으로 들어와 현실감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신장애인이란 직업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여, 병을 얻어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참여자는 어렵게 자리 잡은 직업을 포기할 수 없어 치료를 받기 포기하고 묵묵히 일하며 참아내고 있었다.

오래 걷고 하니까 발바닥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병원 진료받고 하는데 쉬어라 하더라고요. 근데 쉬지는 못하고 병원 다니다가 어차피 병원다녀도 발생하는거 일하자 싶어서, 병원 안가고 일다녀요.(참여자 3)

잠도 오고, 옆에서 막 재촉하고, 너무 빨리 빨리해야 하고 힘든 것예요. 거기에다가 동료 스트레스. 그때 막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참여자 4)

그때 제가 재발하면서 아팠는데 그때 일이 좀 많았어요. \*\*에서 \*\*으로 옮기기도 하고, 2월이고 해서, 2월에는 회계 마감이라서 일도 많고 했는데 그때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

스반아서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아프니까 일이 많은 게 저한테 너무 압박됐어요.(참여자 9)

6개월 버티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는거예요. 일이 재밌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툴게이트 일이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나도 버티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참여자 9)

### (3) 일은 나의 보배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잔존증상을 다양한 근무 상황에서 맞닥트렸고, 증상관리와 문제해결을 통해 자신의 병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참여자는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면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규칙적인 생활과 직업유지를 위한 노력이 증상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현재 직업이 적성에 맞아 만족스러웠고, 직업은 참여자에게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주는 선물이었다.

제일 중요한 게 잠은 밤에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절대 낮에 안자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는 게 있었거든요. 그 습관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참여자 1)

나는 머리 병 때문에 못하는구나 하는거는 생각 안해봤어요. 잠은 오제, 더 빨리 했는데 더하라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잊어먹어요. (참여자 4)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일할 때 정신장애 그런 것도 없고 캐치하는 게 횡단보도 있잖아요. 빨간불이 있으면 남녀가 건너편에 서 있으면 내 흥 보는거 같고 아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참여자 11)

## 2) 체험된 시간: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자라다

이 본질적 주제에서 참여자는 다양한 이유로 직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족과 사회의 보호받았던 존재로 그 틀을 부수

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여자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동시장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차츰 현실과 타협하여 직업을 갖기 위해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시간 경험을 표현하였다. 주제는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픔’, ‘한 걸음씩 내딛기’, ‘평범한 내일 기대하기’로 체험된 시간이 도출되었다.

### (1)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픔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갑자기 덮쳐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치 없는 잉여 인간으로 보는 주변의 시선 그리고 정신장애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일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취업을 시도하나 정신장애의 만성화로 인한 무기력과 사회적 고립은 참여자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냉정한 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의 편견을 이겨냄과 동시에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로 참여자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러나 참여자는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업에 대한 욕구와 용기를 절실하게 경험했던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였다.

독립해야죠. 집에 부모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집에 계속 붙어있을 순 없어요. 나가 살아야죠.(참여자 3)

일해야죠. 집에서 보는 시선도 있고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있어서 놀면은.(참여자 3)  
 지금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항상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4)

처음에 우리 집 형편이 일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연금을 안 받으셔서 수입이 없었어요.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참여자 9)

### (2) 한 걸음씩 내딛기

이 주제에서 참여자가 처음 가지게 된 직업은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 특성

을 가졌고 낮은 급여 등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처음에는 직업을 가지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힘들어도 감수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직업은 참여자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자신이 속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여자는 장애를 돌아보게 되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장애와 능력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웠고, 자격증 취득은 더 나은 조건의 직업으로 이직을 도와주어 성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연습하는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식사 때 얘기했어요. 공장 다니고 싶다고. 이마트 왜 싫냐고 묻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가 있고, 오후 출근할 때가 있고, 내가 여름 휴가비도 없고 설에 보너스 만 원짜리 세 개 넣은 상품권 주고, 추석도 3만 원이 끝나고, 공장에는 여름 휴가비 나오고, 며칠 쉬고 추석 되면 보너스 더 나오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더니 공장가라! 하고.(참여자 2)

제가 아직 정규직도 안됐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되는 게 목표고 그 이후로는 정년까지 일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생활관에 사회 복지사만 돼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 선생님들은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일만 하게 돼도 좀 전문적인 일이니까 제일도 중요한 일이긴 한데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과장까지는 아니어도 생활관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요.(참여자 9)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굴착기, 포크 레이, 지게차, 요양보호사, 조리 기능사, 온수 온도 기능사 5개. 기능대학 나와서 회사일 제쳐놓고 일단은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밤 싸 들고 와서 아무 책이나 갖고 와서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참여자 11)

### (3) 평범한 내일 기대하기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직업으로 인해 장애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와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등 소소한 일상을 살길 바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금을 붓는 등 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였다. 현재는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미래에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였다.

그냥 여행도 다니고 싶고, 제 일하고 싶은 게 결혼할 사람 만나면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어릴 때 꿈이 야구선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사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지만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잖아요.(참여자 1)

적금 금액이 불어나는데... 내 노후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살 때까지 쓸 돈을 벌어나야 할 거 같아요.(참여자 4)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아빠 힘없어서 돈 못 버는데 내가 거기서 돈 달라고 그러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러면...동생한테 옛날에 일 안 할 때 돈 달라고 하니까 짜증 났는데 요즘에 돈 빌려달란 소리 안 해서 좋다면서. 돈 안 빌리고, 손 안 벌린다고. 엄마도 요즘에는 네가 버니까 돈 달라는 소리하지 마라. 또 나중을 위해서 돈 아끼고 나중에도 손 벌리지 말고.(참여자 7)

### 3) 체험된 시간: 멈춘 시간이 움직임이다

이 본질적 주제에서 참여자의 직업에 적응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신질환의 만성화로 인해 참여자는 과거에 신체는 고립되어 있었고 정신은 무기력한 상태였다. 참여자는 이런 자신의 과거를 이겨내야 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도 버텨야 하는 직업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멈춰진 참여자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되었고, 참여자는 어렵게 잡은 직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직업 적응에 몰입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휴식과 균형을 유지하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주제로는 ‘고립감과 무기력에 맞서기’, ‘정신장애 편견 떨쳐내기’,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삶’이 체험된 시간으로 도출되었다.

#### (1) 고립감과 무기력에 맞서기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오랜 시간 사회에 고립되어 있고 무기력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직업유지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동시에 부족한 사회적, 직업적 능력과 취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노동시장의 낮은 자리부터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

리고 참여자는 이런 열악한 직업환경 속에서도 직업재활서비스에 머무르거나 직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른 정신장애인에 비해 자신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해요. 내가 저렇게 기초 수급받고 센터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참여자 2)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참여자 5)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근데 뭔가 사무직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금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저희처럼 취업 못 하는 회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인 거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 단계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참여자 9)

## (2) 정신장애 편견 떨쳐내기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내·외적으로 편견 틀에 갇혀 직업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내적으로 참여자는 약물의 부작용과 정신장애를 숨기며 직업을 유지하면서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신장애로 인해 직업적 능력에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자격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적으로 참여자가 정신장애를 밝혔을 경우, 주변 사람의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비수가 되어 참여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참여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신의 직업유지를 위한 노력이 축적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안 좋게 말할 때 병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공장에 일할 때. 비하하는 말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신병원 어때요. 약 먹는 거 어때요. 그런 약을 올리는 말.(참여자 2)

팀장도 내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상인보다는 많이 모자란 편이죠.(참여자 3)

나와서 일해야지. 그래도 조금 레벨이 높아진다는 거지. 인식이. 저 사람도 한 몫하네. 내지는 아! 저 사람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섞여 있구나. 노력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줘야 하는데...(참여자 5)

내가 출근할 때는 약을 먹으면 말이 허가 말리고 어눌하고 약 먹으면 눈이... 어떤 날은 아 너 술을 먹었나 얼굴 보고 약 때문에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약을 빼먹은 적 있어요. 사람 눈에 빛이 짝 보이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환청 듣고 덜덜 떨고.(참여자 8)

### (3)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삶

이 주제에서 참여자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증상의 경중이 아니라 어떻게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알고 있었고, 증상발생 시 약물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스트레스는 재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인지하여 참여자는 잠시 쉬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으며 휴식과 일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는 휴식과 일의 균형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표현하였다.

내 생활비 쓰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또 뭐고 내가 배우는 게 많아요. 바이올린도 배우고, 우쿨렐레도 배우고, POP도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취미 생활하니까 너무 좋네요.(참여자 4)

쇼핑하는 걸 좋아하죠. 자존감을 높이는 그것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하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일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취미 같은 거 음악 감상 같은 것하고 친구들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면 여행 다니고 하면 자존감 높아져요. 내가 말하는 거는 직업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스트레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얻어지는 그것도 있거든요.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스트레스가 분산되거든요.(참여자 5)

기초교육, 약물 증상 교육, 재활센터에서 스트레스 대처 교육 이거 세 가지. 단 하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자. 그 시간에 노가다 일거리 있어도 안 나갔어요. 센터 갔어요.

그 시간을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러다가 생활하다가 까먹잖아. 물론 100%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아 썸. 이럴 때 뭐였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가르쳐 주면 아! 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생각하고 활용 잘하고...(참여자 8)

#### 4) 체험된 공간: 나의 자리를 찾다

본질적 주제에서 참여자는 정신장애의 만성화로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증상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참여자에게 직장은 경제적 능력을 주었고, 과거 직업 경력이 토대가 되어 자신감과 편안함을 주는 체험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참여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고,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었고, 사회 안에서 참여자는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주제로는 ‘자신감이 생겨 안정됨’, ‘서툰 경험이 쌓여 나의 몫을 해냄’으로 체험된 공간이 도출되었다.

##### (1) 자신감이 생겨 안정됨

이 주제에는 참여자는 부모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용돈을 받거나 적은 돈을 아껴 쓰고 있어 활동 범위가 좁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게 되고 꾸준한 직업 활동으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과 적절한 보상에 대해 만족하였다. 참여자는 스스로 월급을 관리하며 경제적 독립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경제적 독립은 참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도움으로써 참여자가 계속 직업 활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특히 사람을 사귀거나 관계를 확장할 때 돈이 가족과 타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어 주었다고 표현하였다.

요즘은 편안하죠. 완전 정상인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녔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내일이고, 책임져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월급도 열심히 한 만큼 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도 다 좋다고 그래요.(참여자 1)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도 생기고 나 스스로 비굴해지지 않고 그런 거 같아요. 돈이 있으면.(참여자 6)

제가 여기서 나가면 나이도 다 찼고 뭐 나가버리면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막 지상낙원이에요.(참여자 10)

## (2) 서툰 경험이 쌓여 나의 몫을 해냄

이 주제에는 참여자가 취업 초기에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만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직장에서 참여자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이해와 배려는 참여자가 꾸준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공간임이 부각되었다. 또한, 발병 전 직업이나 이전 직업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쌓여 참여자가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업무와 환경 속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직장에서도 요령도 생기고 스트레스에 무덤덤해지는 등 점차 발전된 모습으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었다.

머리를 오래 안 쓰고 하니까, 병도 있고 하니까, 단순하게 살았거든요. 그쪽에 일하면서 처음에 계속 단순노동만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니까 확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라도 조금씩 조금씩 되니까. 일하면서도 크기 채는 게 있거든요. 종류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거든요.(참여자 1)

처음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무덤덤해요. 카트 빼가면 또 시작이구나 싶고.(참여자 2)

고마운 건 애들이 큰일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안 시켜요. 나도 비위가 약해서 같이 올려버리거든요.(참여자 4)

## 5) 체험된 관계: 세상 속 사람들과 함께하다

본질적 주제에서 참여자는 인정받기 위해 가족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장상사의 지지를 통해 일반인보다 더 노력하며 성실히 자신의 구실을 찾아갔

다. 직업유지를 통해 참여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갔다. 그리고 참여자는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가족과 다른 장애인들을 도움을 주는 체험된 관계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그들만의 삶의 터전을 가꾸고 사회에 복귀하였다. 주제에는 ‘성장해 나감에 감사함’, ‘나의 존재감을 발견함’으로 체험된 관계가 도출되었다.

### (1) 성장해 나감에 감사함

이 주제에서는 참여자는 자신의 장애를 알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였고, 일반인과 참여자 사이에 정신장애라는 벽이있지만 일반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다. 정신장애로 인한 흐려진 기억력과 판단력은 참여자의 자신감을 떨어뜨렸지만, 정신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을 메모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는 상사와 동료, 가족, 정신건강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활력소가 되어 직업유지에 도움을 받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참여자는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옛날에 처음 공장 들어갔을 때 하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잘 안되던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같이 들어온 사람 없나 하길래 같이 들어온 형한테 음료수 하나 주면서 물어보라 하더라고요.(참여자 2)

센터에서는 이제는 교육 훈련들을 받다 보니까 증상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안정이 되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상담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힘이 되죠.(참여자 3)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서 남보다 많이 뒤처졌다. 생각해서 노력해야 한다. 남들 따라가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뛰니까 무릎이 안 좋아요.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멈췄는데. 많이 밀렸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두세 개는. 남들 한 걸음 걸을 때 난 두세 걸음 걷고 그래야 한다. 이런 생각 많

이 해요.(참여자 10)

## (2) 나의 존재감을 발견함

이 주제에서는 참여자는 직업을 통해 상사와 동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승화된 관계로 발전되어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형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같이 안고 살아라. 좀 지능이. 교회 책만 보거든요. 공부했으면 형이나 나나 비슷할 텐데, 어릴 때는 공부 잘했거든요. 지금은 지능이 좀 떨어져요. 사회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참여자 1)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여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말고.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참여자 5)

센터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 힘든 점 같은 거 도와주고 센터 잘 이용할 수 있게 대중교통 모르는 사람은 시내버스 같이 타고 다니면서 연습시켜주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원 가서 힘든 거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고.(참여자 6)

## 2. 해석학적 현상학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의 글쓰기 단계는 연구의 최종단계이자 연구 과정의 목적인데 현상학적 인간 과학 연구의 최종단계의 한 형태의 글쓰기이다. 본 연구자는 van Manen (1990)의 네 개의 실존체인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에 근거하여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중심으로 경험한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자자는 성인 초기에 정신장애의 발병으로 지각된 시간은 멈추었고, 삶과 직업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가족과 참여자는 정신장애를 받아

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참여자는 지역사회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 안주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무료한 삶을 살았다.

참여자는 직업유지를 통해 병든 몸이 아닌 온전한 몸을 지향하였다. 참여자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몸의 한계와 제약을 인식하고, 장애로 인한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현실의 틈바구니에서 몸을 채찍질하며 깨우쳤다. 대부분 참여자가 처음 하게 된 일들은 단순한 업무지만, 참여자에게는 낯설고 적응이 어려워 고난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낯선 사람들 속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정신적 증상은 업무에 지장을 줄까 염려되어 눈치가 보이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원했다. 참여자의 떨어진 기억력과 판단력은 직업 적응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언제든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노심초사하였다. 참여자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상사와 과중한 업무로 압박을 받았고, 세상의 방관자에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여자는 변화를 선택하였다. 참여자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정신장애를 뒤로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였고, 일하다 얻은 병은 직업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몸으로 부딪쳐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 중에 몸으로 배운 끈기가 참여자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참여자는 직업 생활 동안 다양한 상황과 업무를 마주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일할 때 집중력이 높아져 긴장과 불안이 줄었고, 참여자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다.

참여자가 직업을 갖게 된 동기는 자립을 통해 회복을 꿈꾸거나, 우리 사회에서 직업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낮게 평가됨으로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참여자에게 주는 눈치 때문이었다. 또한,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 문제가 참여자에게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을 강요하는 등의 막막한 현실을 벗어나 살아남는 방법으로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참여자의 직업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자립, 경제적 문제,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으로 정신장애로 고립된 현실을 벗어나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세상과 연결된 직업은 참여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었고 참여자는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발병 전 자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자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참여자 대부분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자에게 직업이란 정신장애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었고, 대부분 저임금의 단순노동에 종사하여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과 함께 더 나은 조건의 안정된 직업을 찾아 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는 자신의 장애와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격증 준비 등 스스로 실천을 독려하며 끈기 있게 직업 생활을 이어나갔다.

참여자는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자를 돌보고 지켜주는 역할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참여자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 출산, 취업, 집 마련 등 가정을 꾸려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지만, 참여자는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분수에 맞게 살기를 희망하며 미래를 대비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는 자기 앞가림을 하며 어둠 속에서 밝은 희망의 빛을 따라 세상에 한 걸음씩 내딛었고 평범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자라게 되었다.

참여자의 정신장애로 멈춰진 시간은 직업을 통해 앞으로 흘러가며, 참여자는 시련을 극복하여 삶 속의 텅 빈 시간을 채워가야 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참여자를 받아주는 고용주도 부족하였고, 참여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큰 용기가 필요하였다.

세상 속에 고립되었던 참여자는 무기력한 과거의 자신과 냉정한 현실에 맞서며 자신의 시간을 움직여 줄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눈높이를 낮추어 직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을 갖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다른 정신장애인과 달리 참여자는 자신의 회복과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발병 후 증상과 약의 부작용, 재발로 자신의 멈춰진 시간 속에 나온 참여자는 세상의 혼란과 편견 속에 직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참여자는 직업유지를 위해 정신장애보다 우울증으로 질병을 속여 취업에 성공하였고, 일하는 중 저하된 지적 능력과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불시에 찾아오는 불안과 긴장을 참고 숨겨야 했다. 그리고 정신장애를 숨기거나 속임으로써 직업이 생겼지만, 마음은 불편하여 정신장애를 밝히고 직업을 유지하려

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가벼운 농담거리가 되어 참여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참여자를 정신장애의 틀 속으로 끌어당기고 위축되게 만들었다.

직업유지를 잘하면 참여자는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정신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직업유지를 위해 힘썼다. 그리고 직업재활서비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직업유지하기 위해 쇼핑과 맛있는 음식,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나 컨디션 조절하며, 자신의 내부를 환기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발산시켜 직업과 삶의 균형을 잡아갔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상사, 동료와 함께 참여자는 이야기하고 직업적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나가며, 참여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경험을 겪고 있었다(van Manen, 1990). 그리고 직장은 참여자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무대이며,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경제적으로 기대어 살았던 참여자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이어나갔다. 참여자는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였으며,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윤활제로 활용하였고, 월급은 참여자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수단이자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참여자가 가족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며, 가족의 안심을 끌어냈다.

참여자는 발병 전이나 이전 직업의 서툰 경험으로 현재에는 자신감을 가졌고, 조금씩 요령과 일머리가 생겨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직장에서 적응하거나 자리는 잡는 것이 수월해졌다. 그리고 참여자는 개인의 주관적 욕구와 사회적·객관적 욕구가 통합되어 생동감 넘치는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만족하며 스트레스에도 적응된 모습을 보이며 편안함을 나타냈다. 참여자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어렵게 자리 잡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덤덤하게 변하기까지 일반인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었다. 참여자는 갑자기 찾아온 증상으로 힘들 때 휴식이나 근무시간 조정 등

직장의 배려에 고마워했다. 참여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도움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사회인으로 자신의 몫을 해내며 성장하였다.

참여자가 살아오는 과정은 제한적인 대인관계로 외로움을 경험하였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타인과 연결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소속됨을 의미한다. 좁은 취업 문을 뚫고 직업을 획득한 참여자는 직장에서 그림자와 같은 증상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이는 장애인이라는 자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참여자는 업무에 대한 인정, 술선수범하여 타인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관계를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혼자 힘으로 직업 활동을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가족과 상사, 동료,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참여자의 힘든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참여자의 직업유지를 도와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보태주었다. 참여자는 처지가 비슷한 동료와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이들이 아닌 일반인의 세계에 속하고 싶은 양가감정을 느꼈다. 참여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며 성장해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준 사람들에게 대해 감사해했다.

변화와 성장을 거듭한 참여자는 직장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닌 동료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와 가족의 도움을 받던 참여자는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어, 나이가 들거나 아픈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사회의 도움을 받던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역할 전환은 참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직장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어 회복으로 이어졌다. 해석학적 글쓰기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정신장애인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통로의 끝에 보이는 찬란한 미래를 향해 걸어오는 길은 울퉁불퉁한 고난의 길이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직업유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통해 신체와 시간, 공간, 관계를 초월하여 이 고난의 길을 끈기 있게 나아가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V. 논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논의와 간호학적 의의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네 개 실존체는 본질적 주제 5개와 주제 13개로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 연구의 논의를 네 개 실존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체험된 신체에서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온몸으로 깨우치다’이었다. 정신장애인은 오랜 기간의 준비단계를 거처도 직장에 대한 적응력과 업무적 기술이 미비하며, 직업재활서비스의 하나로 학습한 사전 기술훈련이나 습득한 기술은 사업장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Benton & Schroeder, 1990).

남연희와 최치연(2017)은 중증장애인이 신체 기능의 어려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과 난감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김미영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대상자는 증상에 이끌리기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름대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가지게 되고, 일상 업무를 통해 질병을 조절해 나가며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현민과 유진선(2017)은 고된 일과 책임이 따르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나태를 방지하고 의욕을 일으키는 회복의 연결고리로 경험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은 직업이라는 코스에서 현실과 장애 사이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마라톤을 뛰고 있으며, 종착지까지 가는 과정은 정신적 증상, 실수에 대한 부담감,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업무능력, 새로운 작업 환경 및 업무 내용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끈기 있게 직업유지를 하는 경험이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을 가져오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저하된 사회적 능력은 새롭게 주어진 역할수행

에 어려움을 주고 회의감과 실망감 등을 경험하지만, 참고 견디며 실수를 통한 작은 성취의 경험을 몸으로 익혔다. 이러한 경험은 정신장애인의 자존감을 향상하게 시켰으며, 정신장애인은 성공과 실패를 순환적으로 몸을 통해 경험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시작부터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직무교육 및 직업유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은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감 향상해 직업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민석(2018)은 정신장애인의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 긍정적 전망과 의지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체험된 시간에서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자라다’이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는 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두고,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업을 갖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부터 시작이었다(이금진, 2010).

직업에 대한 동기와 욕구가 강해야 구직행동으로 연결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이은미(2006)는 여성 지체장애인이 경제적 이유와 자립과 사회참여 욕구, 정신건강 욕구의 복합적 작용으로 구직을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근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동료지원활동 후 자신의 삶 속에 희망을 찾았고 취업하여 동년배들과 같은 평범함 삶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등(2013)은 조현병 환자가 직업유지를 통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삶의 희망을 경험하였고,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경험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직업이 회복을 도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노동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타 장애인에 비해 낮아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약자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정신장애인 역시 자립, 일의 필요성 인식, 생계의 절박함 등이 직업에 대한 욕구로 표현되었고,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는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

망을 줄 수 있는 세상과 연결된 통로였다. 결국, 정신장애인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인 것이다. 김용섭, 강대혁과 박소연(2010)은 정신장애인의 직업 및 직무수행능력과 동기유발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고, 동기유발을 통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영화 ‘위 캔 두 댓’에서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복지정책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복지이론의 엇박자가 결국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방해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복지정책과 복지이론에 의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며, 정신장애인 스스로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적극적인 구직과 직업유지에 대한 동기유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체험된 시간에서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멈춘 시간이 움직이다’이었다.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은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생애사적 사건으로 정신장애인의 멈춘 시간을 움직이게 하며 그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미영과 변은경(2015)은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부정적 인식이 인간 존엄성의 상실, 부당한 대우, 억압, 불이익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한된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은미(2006)는 여성 지체장애인으로 마찬가지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고용주와 면접관 외에도 가족, 이웃, 친척에게 특정 직업을 강요받은 경험이 드러났다. 조현병 환자의 직업유지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독립취업에 의한 어려움으로 자신의 정신증상을 밝혀야 하는 두려움과 증상을 숨겨야 취업이 되는 현실의 어려움을 내포하였다(김미영 등, 2013).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은 낙인을 내재화하여 능력을 낮게 평가하였고, 정신장애의 증상이나 약물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정신장애가 밝혀지면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정신장애인이 불안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원 고용과 독립취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함을 경험하였다. 이는 여성 지체장애인이 구직을 시도하는 이유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장애보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

용함이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었다.

남연희와 장은혜(2009)의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은 수준이 낮다는 단어를 자주 들으며 일반인과 자신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여 본 연구와 결과가 유사하였다. 장애의 유형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장애인들이 받는 편견과 교육, 정서적 지지 정도는 다르고, 이런 후천적 영향으로 자기낙인을 가진 정신장애인은 수동적 삶을 살아가며, 직업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쉽게 포기하였다.

‘정신질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수기에서 정신장애인 스스로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사회의 편견보다 정신장애인 스스로 병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들어 낸 편견에서 벗어나야 정신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족 안에서 정신장애인이 편견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현민과 유진선(2017)은 정신장애인이 증상을 스스로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느리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김미영 등(2013)은 조현병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면 잠시 쉬거나 여유를 가지고 관리하여 꾸준히 일을 유지하는 경험을 보고하였고, 재발 예방을 위해 휴식과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재발 예방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신장애인은 근무 중 사례관리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건강간호사는 취업자 모임을 주말에 하거나 퇴근 후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서비스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신건강간호사도 소진을 경험하였다. 정신장애인이 직장에서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근무 중 증상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과 여가활동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시스템구축과 제도

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 ‘뷰티풀마인드’에서도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내쉬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증상을 결함으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누구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산된다면 정신장애인은 고립된 생활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일상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중재 방안 개발되어야 한다(Dixon et al., 2011).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노력이 강조되며,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성교육처럼 정신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체험된 공간의 본질적 주제는 ‘나의 자리를 찾다’이었다. 정신장애인의 생계와 주거는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적인 삶의 기회와 선택을 위협하는 주요 조건으로(홍선미, 하경희와 김문근, 2013), 정신장애인의 생존권과 연결이 되었다. 정신장애인은 발병 후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의학적 모델에 의해 평가되고, 시설과 가족의 보호 아래 의존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배제되었던 자신의 권리와 사회적 역할을 취득 및 수행을 하였고 경제력을 통해 가족과 동료 등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었다. 남연희와 최치연(2017)은 중증장애 근로자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천천히 교육하고 함께 지내면, 인정과 배려를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보고하였고,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현장에서 합리적 배려는 동료 간의 유대감과 근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진, 2010).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소속감, 안정감을 느꼈으며, 직장과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해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소설 ‘뷰티풀 마인드’에서 린드백은 내쉬의 비참한 삶을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로 구하였다고 표현하였으며, 이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객관적 평가는 사람들 인식변화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정해미(2019)의 ‘나는 장애인입

니다’라는 시에서도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정신 장애인 관점에서 표현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재발 등으로 안정된 직업유지를 포기하고, 빈곤에 대한 걱정으로 직업보다는 공공부조로 기초생활수급권에 머무르는 현실적으로 선택하기도 하였다(홍선미 등, 2013). 그러나 직업재활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직업유지이며, 직업을 가져야 회복으로 보는 획일화된 기준은 정신장애인 삶에 대한 선택 권리를 억압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동정,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신을 개성을 가진 인격체로 동등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Marwaha와 Johnson (2005)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가장 절실한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꼽았고, 박은주(2011)는 정신장애인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높일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필요 등 현실적 요구로 인해 직업유지를 한다고 보고하였다(박경순과 전미리, 2009, 박은주, 2011; Angell & Test, 2002). Veenhoven (1991)은 수입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며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Bryson, Lysaker, & Bell, 2002), 이는 정신장애인의 월급이 그들의 기본적 생활 유지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부여해준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Leete (1989)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작은 성공들이 다른 일들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자신감과 스스로 느끼는 약점, 무능력을 대신한다고 하였고, 이은미(2006)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수행의 기술을 익히며, 자신이 처한 물리적, 외부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안정감이 쌓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일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험을 보고하였다(남연희와 최치연, 2017). 이는 과거 직업 경험과 상사, 동료의 도움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며 자신감이 향상된 경험을 나타낸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은 계획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관리와 실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표현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체험된 관계의 본질적 주제는 ‘세상 속 사람들과 함께하다’이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은 삶의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균형감을 익혀가는 기회를 상실한 정신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질서 속에 자리를 잡게 한다.

강석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참여적 삶을 통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주체의 모습을 드러냈다. 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가족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여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직업은 사회 속 정신장애인의 존재를 인식시켜주었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변화되어야 정신장애인은 진정한 회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수기 ‘다시 꾸는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는 직업 연계부터 적응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과 직장 상사, 동료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경험이 나타났으며(김미영 등, 2013), 본 연구결과에서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돕는다는 경험과 그 결과가 일맥상통하였다.

가족은 정신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 같은 존재’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김고운과 김수진, 2017; 김민과 밀러 우마, 2015; 이은미, 2006). 그리고 조상미 등(2012)은 취업한 정신장애인은 가족 내에서 소홀하였던 역할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역할 재정립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을 보고하여 그 결과가 일맥상통하였다. 정신장애인은 직장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인정받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다(Angell & Test, 2002). 그러나 정신장애 질병 특성상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취업한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적 관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일반화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아닌 실생활과 사업장에서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은 개발 및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정신장애인은 억압된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재정립하고 경제력을 가지며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여 자신의 삶에 통제력과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전문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지지적인 업무환경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촉진하였고(Deegan, 1988), 동료, 가족, 정신건강간호사와 지지적인 관계 속에서 일반인과 함께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정신장애인은 직업을 통해 직업재활에 성공하고 사회 적응과 함께 독립된 사회일원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직업은 정신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세상에서 장애로부터의 일상적 도전에 대응하고, 장애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서의 의미와 만족, 희망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연구, 간호이론, 간호실무 및 간호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네 개의 실존체로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서술적 이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간호학 이론지식체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간호사 입장에서의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직업유지를 실증적 탐색 연구를 통해 확인하여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정신간호학 이론지식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연구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문제를 사회와 연관된 그들의 관점에서 직업유지 경험을 깊이 있고 생생하게 기술하였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간호이론, 간호실무, 간호정책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사의 역할 확대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발점

이 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간호실무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방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진로개발부터 직업 연계, 직업유지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담당하는 정신건강간호사의 정신장애인 전문 직업상담사로 실무와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간호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사업장과 고용주, 일반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예방 및 전환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주도 정신장애인의 안정된 맞춤형 직업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고용주와 일반인 근로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업무적 파트너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장 내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및 일반인 동료지원사업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취업 후 전체 업무의 차질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직무 지도를 해주면 직업유지 가능성이 커지므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건강간호사가 정신장애인 전문 직업상담사로 직업재활서비스에서 고용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과 정신장애인 심리·사회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업장에 제공 및 감독하는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가 제시되었다는 것에도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을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서술하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직업유지하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의 정신장애의 종류와 다양한 직업환경, 직업 욕구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직업적 특성을 나누어 직업유지 경험에 대해 연구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지 의미 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의 중요한 지표인 직업유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진로설계부터 직업유지까지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정신건강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정신장애인 전문 직업상담사 교육과정과 간호 중재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건강간호사가 정신장애인 전문 직업상담사로 진로 설계부터 맞춤형 구직기술 프로그램, 취업 후 사례관리까지 직업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를 질병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배려심 있는 분위기 조성에 관한 연구와 효과적인 정신장애 인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장애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금전 관리, 자존감 향상 및 대인관계기술 등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 주도의 질적·양적 고용환경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강석임(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 정체감 매개효과*. 박사학위, 가톨릭대학교, 서울.
- 고용노동부(2018). *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9).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 공병혜(2004). 간호연구에서의 현상학. *현상학과 현대철학*, 23, 151-178.
- 공병혜(2017). 돌봄의 학문과 해석학. *인문학연구*, 54, 329-351.
- 국가법령정보센터(2000, 2020 March 23). 장애인복지법 제2조.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9E%A5%EC%95%A0%EC%9D%B8%EB%B3% B5%EC%A7%80%EB%B2%95#undefined>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2020 March 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0%95%EC%8B%A0%EA%B1%B4%EA%B0%95%EC%A6%9D%EC%A7%84+%EB%B0%8F+%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undefined>
- 국립정신건강센터(2018). *‘18 정신건강전문요원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 김고운과 김수진(2017).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 Q 방법론적 접근. *대한정신건강간호학회지*, 26(1), 77-87. doi:10.12934/jkpmhn.2017.26.1.77
- 김귀분, 신경림, 김소선, 유은광, 김남초, 박은숙, 등(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김미영, 김연실, 이난희, 정보영과 조현미(2013). 조현병 환자의 직업유지 경험. *질적연구*, 14(2), 145-157.

- 김미영과 변은경(2015). 정신장애인의 직업 중단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4(3), 178-187. doi:10.12934/jkpmhn.2015.24.3.178
- 김미영과 전성숙(2011). 고용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조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0(1), 46-54.
- 김민과 밀러 우마(2015). 정신장애인의 직업의 의미: 아시아인과 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4), 227-249.
- 김민석(2018). 정신장애인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사회과학연구*, 34(1), 85-110. doi:10.18859/ssrr.2018.02.34.1.85
- 김성희와 이요행(2006). 정신장애 근로자의 지각된 고용풍토와 직무만족간의 관계. *직업재활연구*, 16(2), 103-118.
- 김성희, 이연희, 오옥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등(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애령(2009).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론적 적용의 문제: 체험연구의 현상학적 토대와 해석학적 확장. *탈경계 인문학*, 2(1), 231-257.
- 김영천과 이현철(2017).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섭, 강대혁과 박소연(2010).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2), 107-120.
- 김이영, 이용표와 강상경(2006). *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 패러다임*. 서울: EM커뮤니티.
- 김지웅, 황태연, 서용진, 김도윤, 박혜선, 박한선, 등(2015).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현황과 효과성: 국내 및 외국사례에 대한 조사*. 공주: 국립공주병원.
- 김지혜와 유석분(2016). 간호학 지식 분류에 근거한 정신간호학회지 논문분석: 최근 5년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5(1), 21-27. doi:10.12934/jkpmhn.2016.25.1.21
- 김현민과 유진선(2017). 일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상이 세워지는 과정과 맥락: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8, 115-147.
- 김혜연(20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분석. *한국*

- 사회복지학, 62(4), 171-192.
- 나운환, 이창희, 김춘만, 김동주, 이운식과 이혜경(2014). *직업재활시설론*. 서울: 집문당.
- 남연희와 장은혜(2009).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농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9(1), 55-78.
- 남연희와 채인석(200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취업의지, 직업적응능력, 직업환경만족도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9(1), 187-201.
- 남연희와 최치연(2017).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직업유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7(2), 45-67. doi:10.24226/jvr.2017.08.27.2.45
- 류승아(2012). 정신장애인과외의 접촉경험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22(1), 51-70.
- 류의근(2016). 반 고흐의<낮은 구두> 해석 논쟁. *대동철학*, 76, 31-56.
- 류지수(2003).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박경순과 전미리(2009).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내 직업유지 예측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20(4), 49-77.
- 박은주(2011). 정신장애인의 생애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발병 이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5-28.
- 박종연(2018, 2020 March 22). 정신장애인이었기에 취업이 두려웠다. *마인드포스트*. Retrieved from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09>
- 박중은(201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와 회복에 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서울.
- 박주홍(2009).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장기근속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1), 69-104.
- 변은경, 윤숙자와 최송식(2012). 취업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1(1), 18-26. doi:10.5807/kjohn.20

12.21.1.18

-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손명자(2006).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5-57.
- 송은주와 김경희(2019). 당사자연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2), 87-111.
- 송진영(2018, 2020 March 22). 힘들게 취업한 정신장애인 내모는 편견의 벽. *국제뉴스*. Retrieved fro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body.asp?code=0700&key=20180905.22018013691>
- 심경순(2003). 정신장애인이 인식하는 직업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1), 7-31.
- 안은선과 서지민(2015). 정신 장애인의 직업 재활 동기 개념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24(4), 279-289. doi:10.12934/jkpmhn.2015.24.4.279
- 안희철과 김민아(2017). 정신요양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4), 53-82. doi:10.24301/MHSW.2017.12.45.4.53
- 연명모와 이금진(2013). *정신장애인 고용유지율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사업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오수경과 장숙(2019).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질적연구 동향 분석: 1991년 부터 2018년까지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9(1), 21-39. doi:10.24226/jvr.2019.4.29.1.21
- 유승주와 김옥희(2018). 직업재활 종사자 관점의 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5(1), 73-89. doi:10.20496/cpew.2018.5.1.73
- 유혜령(2014). 현상학적 글쓰기: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살아나는 공간 만들기. *교육인류학연구*, 17(4), 1-34.
- 유혜령(2015).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 Max van Manen의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5(1), 1-20.
- 이근희(2014). *동료지원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박사학위,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이금진(2003).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3(4), 21-51.
- 이금진(2010). 정신장애인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237-261.
-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남인(2012). 현상학적 환원과 현상학의 미래: “현상학적 환원의 현상학”을 위한 하나의 기여. *현상학과 현대철학*, 54, 89-121.
- 이남인(2013). *후설과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파주: 한길사.
- 이미형, 손정남, 원정숙, 정명실, 현명선, 한금선, 등(2007). 정신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을 통한 정신간호연구 동향: 창간호에서 2006년도까지. *정신간호학회지*, 16(3), 295-307.
- 이용표, 강석임과 노수희(2015).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간의 경로분석: 회복(Recovery)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8, 75-97.
- 이은미(2006). 여성지체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유지 과정에 대한 경험 연구. *장애와 고용*, 16(1), 67-92.
- 이은주와 박영숙(1993). 간호학 방법론에 대한 성찰. *한국간호과학회*, 23(3), 453-466.
- 이슬기. (2018, 2020 March 22). 직장내 정신·발달장애인 든든한 버팀목. *에이블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80821133653291689>
- 이준호와 최희철(2015). 정신장애인의 회복태도가 직업유지기간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2(3), 37-58.
- 이형렬과 이화진(2005).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개인적 훈련능력 및 훈련사업체 특성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5(1), 105-130.
- 이희승(2007).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파주
- 장혜경(1996).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가

- 톨릭대학교, 서울.
- 정미화(201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5(1), 201-228. doi:10.24301/MHSW.2017.03.45.1.201
- 정상원과 김영천(2014).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20(3), 5-42.
- 정해미(2019). *몽당 색연필*. 서울: 흙출판사.
- 조광제(2008). *의식의 85 가지 얼굴: 후설 현상학의 주요 개념들*. 서울: 글항아리.
- 조상미, 김경희, 최미선과 백은지(2012).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업 취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4), 146-174.
- 조한구(2006). *특허받은 비서한자사전*(4th ed.). 서울: 시사문화사.
- 주소희와 이정은(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현병 인식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4), 34-53. doi:10.24301/MHSW.2019.12.47.4.34
- 최희철(2015). 한국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발전방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2(1), 39-54.
- 하경희(2019). 회복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아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1), 61-87.
- 하경희와 성준모(201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6(2), 131-15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영어영문학회(2006). *슈프림 영한대사전*. 용인: 민중서관
- 한상숙, 한정혜와 윤은경(2008). 정신장애인의 취업의지 예측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8(4), 541-549.
- 한전숙. (1996). *현상학*. 민음사: 서울.
- 홍선미, 하경희와 김문근(2013).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생활을 위한 소득보장과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1), 5-3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doi: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Angell, B., & Test, M. A. (2002).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factors and environmental opportunities to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8(2), 259-271. doi:0.1093/oxfordjournals.schbul.a006936
-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the 1990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6(4), 11-23. doi:10.1037/h0095655
- Aviram, U. (1990). Community care of the seriously mentally ill: Continuing problems and current issu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6(1), 69-88. doi:10.1007/BF00752677
- Benton, M. K., & Schroeder, H. E. (1990). Social skills training with schizophrenics: A meta-analytic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41-747. doi:10.1037/0022-006x.58.6.741
-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ryson, G., Lysaker, P., & Bell, M. (2002). Quality of life benefits of paid work activity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8(2), 249-257. doi:10.1093/oxfordjournals.schbul.a006935
- Casper, E. S., & Fishbein, S. (2002). Job satisfaction and job success as moderators of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6(1), 33-42. doi:10.2975/26.2002.33.42
- Cheadle, A. J., & Morgan, R. (1972). The measurement of work performance of psychiatric patients: A reappraisal.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0(557), 437-441. doi:10.1192/bjp.120.557.437
- Corbiere, M., & Lecomte, T. (2009). Vocational services offered to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Journal of Mental Health*, 18(1), 38-50.

doi:10.1080/09638230701677779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3rd Ed.).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 Crotty, M.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Davidson, L., O'Connell, M. J., Tondora, J., Lawless, M., & Evans, A. C. (2005). Recovery in serious mental illness: A new wine or just a new bottl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5), 480-487. doi:org/10.1037/0735-7028.36.5.480
- Deegan, P. E. (1988). Recovery: The lived experience of rehabilitation.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1(4), 11-19. doi:10.1037/h0099565
- Distenfanso, M. K., & Pryer, M. W. (1970). Vocational evaluation and successful placement of psychiatric clients in a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4(3), 205-207.
- Dixon, L. B., Lucksted, A., Medoff, D. R., Burland, J., Stewart, B., Lehman, et al. (2011). Outcomes of a randomized study of a peer-taught family-to-family education program for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62(6), 591-597. doi:10.1176/ps.62.6.pss6206\_0591
- Dunn, E. C., Wewiorski, N. J., & Rogers, E.S. (2008).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employment to people recovery from serious mental illness: Results of qualitative stud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2(1), 59-62. doi:10.2975/32.1.2008.59.62
- Edwards, B. D., Bell, S. T., Arthur, Jr, W., & Decuir, A. D. (2008). Relationships between facets of job satisfaction and task and contextual performance. *Applied Psychology*, 57(3), 441-465. doi:10.1111/j.1464-0597.2008.00328
- Erikson, E. H. (1959). The problem of ego identity i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104.
- Ford, L. H. (1995). *Providing employment support for people with*

- long-term mental illness. Choices, Resources, and Practical Strategies.*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Fouad, N. A., & Byars-Winston, A. M. (2005). Cultural context of career choice: Meta analysis of race/ethnicity differenc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3), 223-233. doi:10.1002/j.2161-0045.2005.tb00992
- Frounfelker, R., Teachout, A., Bond, G. R., & Drake, R. E. (2011). Criminal justice involvement of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nd supported employment outcom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6), 737-741. doi:10.1007/s10597-010-9345-x
- Heidegger, M. (1998).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서울: 까치.
- Husserl, E. (1997). 유럽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이중훈 역). 서울: 한길사.
- Jahoda, A., Kemp, J., Riddell, S., & Banks, P. (2008). Feelings about work: A review of the socio emotional impact of supported employment o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1(1), 1-18. doi:10.1111/j.1468-3148.2007.00365.x
- Kirsh, B.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for mental health consumer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4(1), 13-21. doi:10.1037/h0095128
- Kober, R., & Eggleton, I. R. (2005).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10), 756-760. doi:10.1111/j.1365-2788.2005.00746
- Korr, W. S., & Ford, B. C. (2003).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the mentally ill. *Quality of Life Research*, 12(1), 17-23. doi:10.1023/a:1023556916615
- Leete, E. (1989). How I perceive and manage my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15(2), 197-200. doi:10.1093/schbul/15.2.19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stablishing trustworthiness.

- Naturalistic Inquiry*, 289(331), 289-327.
- Liu, W. M., Iwamoto, D. K., & Chae, M. H. (Eds.). (2011). *Culturally responsive counseling with Asian American men* (Vol. 5). UK, England: Routledge.
- Lunt, A. (2002). A theory of recover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0(12), 32-39. doi:10.3928/0279-3695-20021201-13
- Marwaha, S., & Johnson, S. (2005). Views and experiences of employment among people with psychosis: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1(4), 302-316. doi:10.1177%2F0020764005057386
- McLean, J. (2003). Employees with long term illnesses or disabilities in the UK social services workforce. *Disability & Society*, 18(1), 51-70. doi:10.1080/713662198
- McReynolds, C. (2002). Psychiatric rehabilitation: The need for a specialized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7(1), 61-69.
- McQuilken, M., Zahniser, J. H., Novak, J., Starks, R. D., Olmos, A., & Bond, G. R. (2003). The work project survey: Consumer perspectives on work.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8(1), 59-68.
- Morrell, M. J. (2002). Stigma and Epilepsy. *Epilepsy & Behavior*, 3(6), 21-25. doi:10.1016/S1525-5050(02)00547-4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Vol. 2).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Nasar, S. (2011). 뷰티폴마인드.(신현용, 이종인, 승영조 역). 서울: 승산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0 May 25). Disable. Retrieved from <https://www.etymonline.com/search?q=disable>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0 May 25). Disease. Retrieved from [https://www.etymonline.com/word/disease#etymonline\\_v\\_11416](https://www.etymonline.com/word/disease#etymonline_v_11416)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20 May 25). Work. Retrieved from [https://www.etymonline.com/word/work#etymonline\\_v\\_10846](https://www.etymonline.com/word/work#etymonline_v_10846)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0).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Paris: OECD.
- Ostrow, L., & Adams, N. (2012). Recovery in the USA: From politics to peer support. *Journal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24(1), 70–78. doi:10.3109/09540261.2012.659659
- Pratt, C. W., Gill, K. J., Barrett, N. M., & Roberts, M. M. (2013). *Psychiatric rehabilitation*. MA: Academic Press.
- Purlee, G. D. (1993). *Predictors of employment outcome for with serious mental illness*. Doctori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Indiana.
- Ramsay, C. E., Broussard, B., Goulding, S. M., Cristofaro, S., Hall, D., Kaslow, N. J., et al. (2011). Life and treatment goals of individuals hospitalized for first-episode nonaffective psychosis. *Psychiatry Research*, 189(3), 344–348. doi:10.1016/j.psychres.2011.05.039
- Staples, L. H. (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2), 29–42. doi:10.1300/J147v14n02\_03
- Stuart, H. (2004). Stigma and Work. *Health Care Papers*, 5(2), 100–111. doi:10.12927/hcpap.16829
- Vandenberg, D. (1974). Phenomenology and educational research. In D. Denton(Ed.). *Existentialism and phenomenology in education* (pp. 183–220). N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s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n Manen, M. (2014). *Phenomenolgy of Practice: Meaning-giving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Walnut Creek: Left Coast Press.
- van Manen, M. (2016). *Writing in the dark: Phenomenological studies in interpretive inquiry*. London: Routledge.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doi:10.1007/bf00292648
- Whitley, R., & Drake, R. E. (2010). Recovery: A dimensional approach. *Psychiatric Services*, 61(12), 1248-1250. doi:10.1176/ps.2010.61.12.124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2020 June 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ies and health.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health-topics/disability#tab=tab\\_1](https://www.who.int/health-topics/disability#tab=tab_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2020 June 5).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substance\\_abuse/terminology/icd\\_10/en/](https://www.who.int/substance_abuse/terminology/icd_10/en/)

## 부 록

##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주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관한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본 연구는 취업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면적인 직업 및 직업유지, 직업성과 외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자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과정과 직업 경험에 관한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와 연구자가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이며, 직업유지 과정과 직업 경험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연구 참여하는 중간이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특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항에 대한 귀하의 응답 및 면담은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그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인 모든 사항은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자 보관용과 참여자 보관용 각각 1부로, 총 2부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날짜, 성명 및 서명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보관용은 귀하에게 제공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응해주신 참여자분께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    년       월       일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경희

연구자: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영미

e-mail: 01771king@hanmail.net

연락처: 010-0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계명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53-580-6299, 이메일: kmirb@gw.kmu.ac.kr

연구 책임자 이름: 김 영 미 (서명)      날 짜: . .

연구 참여자 이름: (서명)      날 짜: .

. .

(필요하면)

법정대리인 이름: (서명)      날 짜: .

. .

관계:

## 부록 2. 심층면접 지침서

### 심층면접 지침서

| 구 분      | 내 용                                                                                                                                                                                                                                                                                                                  |
|----------|----------------------------------------------------------------------------------------------------------------------------------------------------------------------------------------------------------------------------------------------------------------------------------------------------------------------|
| 오리엔테이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에 대한 소개</li> <li>• 연구의 목적</li> <li>•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이유</li> <li>• 연구 진행 일정 및 방법 소개</li> <li>• 연구 참여 동의<br/>(비밀보장, 녹음이나 기록에 대한 동의 등)</li> </ul>                                                                                                                              |
| 일반적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사항<br/>(성별, 나이, 최종학력, 결혼상태, 진단명)</li> <li>• 직업 관련 기본 사항<br/>(소득, 근무기간, 취업형태, 근로시간, 취업종류, 직종)</li> </ul>                                                                                                                                                                   |
| 직업 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을 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li> </ul>                                                                                                                                                                                                                                                |
| 직업 획득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은 어떻게 찾으셨나요?</li> <li>• 직업을 구하면서 변화된 점은 무엇입니까?</li> <li>• 직업을 구하면서 당신의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li> </ul>                                                                                                                                                                       |
| 과거 직업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직업(취업, 일)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li> <li>• 이전 직업(취업, 일)이 현재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li> </ul>                                                                                                                                                                                 |
| 현재 직업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취업, 일)을 통해 변화된 점(심리적/대인관계/사회적/경제적)은 무엇입니까?</li> <li>• 직업(취업, 일)에 적응하면서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li> <li>• 직업(취업, 일)의 적응에 방해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li> <li>•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다습니까?</li> <li>• 일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li> <li>• 직업유지 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한계) 힘들 때 어떻게 하였나요?</li> </ul> |
| 직업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li> <li>•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거나/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직업(취업, 일)으로 인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li> </ul>                                                                                                                                            |

|          |                                                                                                                                                                                                                  |
|----------|------------------------------------------------------------------------------------------------------------------------------------------------------------------------------------------------------------------|
| 직업의 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의 취업에 영향(도움)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는 내부/외부의 자원은 무엇입니까?</li> </ul>                                                                                                                  |
| 사회적 지지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에 대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li> <li>직업(취업, 일)을 구한 후 가족의 변화는 무엇입니까?</li> <li>직장 상사와 동료는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li> <li>직장 동료나 상사와 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li> </ul> |
| 직장 공간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은 어떤 공간입니까?</li> </ul>                                                                                                                                                  |
| 직업과 질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을 유지하는 동안 당신의 질환(증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li> <li>직업(취업, 일)은 당신의 질환(증상)에 어떤 영향(변화)을 미쳤습니까?</li> </ul>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신의 미래계획은 무엇입니까?</li> <li>현재 직업은 당신의 미래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li> </ul>                                                                                                       |

### 부록 3. 경험 분석에 활용된 문학과 예술작품 목록

#### 1. 문학작품

##### 1) 시/소설

-몽당 색연필: 정해미, 2019년

-뷰티풀 마인드: 실비아 네이사(신현용, 이종인, 승영조 역), 2011년

##### 2) 수기(다시 봄날, 조현병 청년들의 회복이야기)

-다시 꾸는 꿈.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pmhc&logNo=221123350653&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내가 걸어왔고 걸어가야 할 길.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pmhc&logNo=221122897326&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내 삶의 현을 고르다.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pmhc&logNo=221112859443&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봄날.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pmhc&logNo=221107529914&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정신질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pmhc&logNo=221105698079&categoryNo=24&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 2. 예술작품

##### 1) 그림

-빛을 향해 나는 새.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gpmhc/221858315723>

-커피 그리고 나. (2017, 2020 March 20).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gpmhc/221838306697>

-웃음. (2017, 2020 March 20). (2019, 2020 March 9). Retrieved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pmhc&logNo=220586960612&categoryNo=2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 3. 영상예술작품

#### 1)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EBS 다큐 시선. (2019, 2020 March 9).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d6hsrARS-oY>

#### 2) 영화

-위 캔 두 댓! (Si Puo Fare, We Can Do That). (2008, 2020 April 18).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R2E5nXKLjU>

Experience of employment maintenance among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focused on Max van Manen's interpretive phenomenology

Kim, Young Mi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yunghe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ssential structures and indications in the experience of employment maintenance among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and provide basic data to help with the resocialization and recovery of these people.

This study was based on van Manen's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nd in-depth interview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1 participants with mental health disorder who had been employment maintenance for 6 months or longer and had not stopped work for more than 2 weeks. from March 11 to August 30, 2019.

The average time for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ubjects was held more than twice, each lasting between 60 to 120 minutes. The main

question for the in-depth interview was “how is the experience of employment retention among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The transcribed data was analyzed through van Manen’s (1990) phases of turning to the phenomenon of interest, investigating the experience as we live it, hermeneutic phenomenology reflection, hermeneutic phenomenology writing.

As a result, 13 themes and 5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according to van Manen’s (1990) four lifeworld existentials of lived time, lived body, lived space, and lived relations. As essential themes for the lived time for the experience of employment retention among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hope grows in the dark” and “the stopped time is moving” were derived. For the lived body, “awakened the entire body” was identified, and for the lived space, “finding my position.” Finally, for the lived relations, “being together with the people in the world” was derived.

In conclusion, the experience of employment maintenance among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was a process of acquiring employment, a

channel that enables connecting with the world, thinking abou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motivation of the people with illness, controlling the symptoms which are also part of oneself, and finding and showing one's own position and existence in the world, leading to recovery and growth.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useful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employment maintenance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order and facilitating employment that can help with the successful resocialization and recovery of these people.

##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 -Max van Manen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김 영 미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 이 경 희)

###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여  
직업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과 심층면담에 의한 연구로서 2019년 3월 1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2주일 이상 일을 중단한 적 없이 6개월 이상 직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 1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은 2회 이상, 1회 면담 시간은 최소 60분에서 최대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 면담에 사용된 주 질문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어떠한가?’이었다. 필사된 자료는 van Manen (1990)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체험의 본질로 돌아가기, 실존적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 글쓰기의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그 결과 van Manen (1990)이 제시한 네 가지 실존체인 체험된 시간, 체험된 신체, 체험된 공간, 체험된 관계에 따라 13개의 주제와 5개의 본질적 주

제로 도출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체험된 신체에 대한 본질적 주제로 ‘온몸으로 깨우치다’였고, 체험된 시간에 대한 본질적 주제로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자라다’와 ‘멈춘 시간이 움직임이다’가 도출되었다. 체험된 공간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나의 자리를 찾다’이며 마지막으로 체험된 관계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세상 속 사람들과 함께하다’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동기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인 직업을 획득하고, 자신의 일부분인 증상을 조절하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존재를 드러내는 회복과 성장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대한 이해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직업유지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